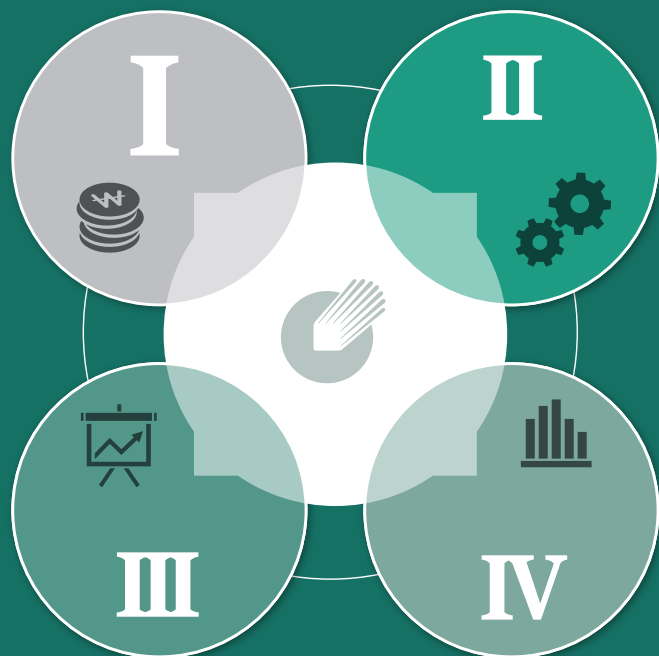




2024 경제전망 I

2024 Economic Outlook I

[지출부문]



2024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4년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홍 선 기 경제분석관
황 종 료 경제분석관

작성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 종 료 경제분석관
김 원 혁 경제분석관
박 선 우 경제분석관
설 경 원 경제분석관

지원 | 엄 상 미 행정실무원

「2024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4. 3.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4. 3.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며 성장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어 체감 경기는 경제 주체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는 세계교역이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경기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 I 권에서는 국내 경제를 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지출 측면에서 분석·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둔화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민간소비, 정부소비, 민간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이전 전망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나, 순수출의 성장세에 더욱 무게를 두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2.0%)보다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보다 완만하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2.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 및 국가별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의 심화 등으로 치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가계 실질소득 증진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4년 지출 부문별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2.6	0.9	1.8	1.4	2.4	2.1	2.2
민간소비	4.1	3.1	0.6	1.8	1.2	2.2	1.7
정부소비	4.0	2.5	0.0	1.3	1.2	1.3	1.2
건설투자	-2.8	1.8	0.8	1.3	-2.4	-2.6	-2.5
설비투자	-0.9	5.3	-3.9	0.5	2.1	4.1	3.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0.3	1.6	2.4	3.2	2.8
총수출	3.4	-0.9	6.9	3.1	7.2	4.5	5.8
총수입	3.5	4.4	1.9	3.1	4.2	3.7	3.9
경상수지(억달러)	258	11	343	355	286	274	560
상품수출(통관)	6.1	-12.4	-2.3	-7.5	9.8	7.1	8.4
상품수입(통관)	18.9	-7.8	-16.4	-12.1	-2.7	10.2	3.5
GDP디플레이터	1.3	0.9	3.2	2.1	3.6	2.0	2.8
소비자물가	5.1	3.9	3.3	3.6	2.8	2.4	2.6
명목 국내총생산(GDP)	3.9	1.8	5.0	3.4	6.1	4.1	5.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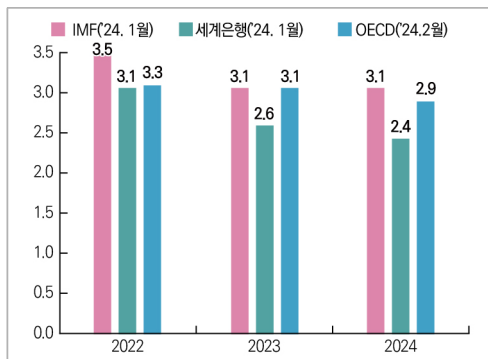
I. 경제 여건

1. 세계 경제

□ 2024년 세계 경제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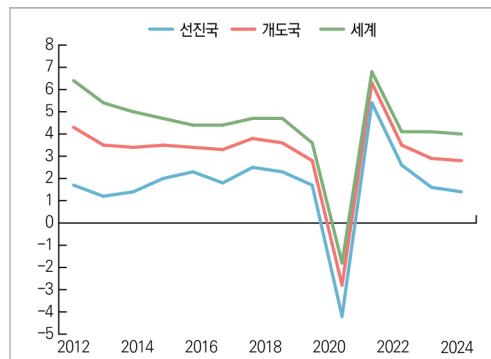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 세계 교역량은 2.8% 증가 예상
 - 세계 경제는 세계 교역 증가세가 확대되고 관련 제조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23년 1.6%에서 '24년 1.4%로 성장세 둔화
 - 개도국 경제는 '23년 4.1%에서 '24년 4.0%로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 별로 성장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중국, 브라질 등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6.8%에서 2024년 5.8%로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은 효과적인 통화정책, 환율 등의 영향으로 2023년 4.6%에서 2024년 2.6%로 완만하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

- 반면 개도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
2023년 8.4%, 2024년 8.1%로 완만하게 하락
- o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 국제원자재가격은 전년 대비 2.0% 하락 예상

□ 전망의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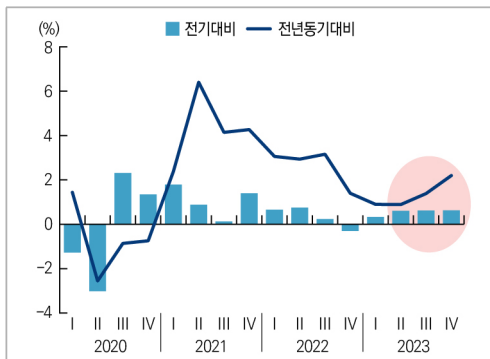
- o (상방 요인)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조기 종료, 미국 경제의 연착륙,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
- o (하방 요인) 중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통화 긴축기조 지속, 지정학적(geo-economic) 분열 가속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

2. 국내 경제

□ 2023년 국내 경제는 하반기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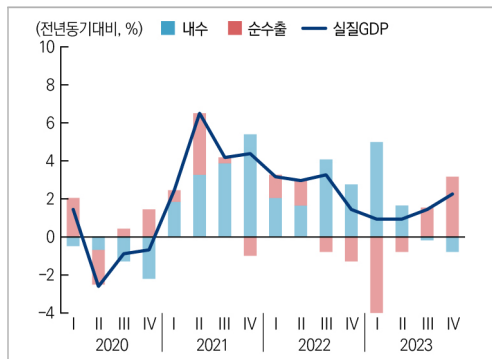
- o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며 성장세가 확대
- o 그러나 그동안 경기를 이끌던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며 상반된 움직임

| 실질GDP 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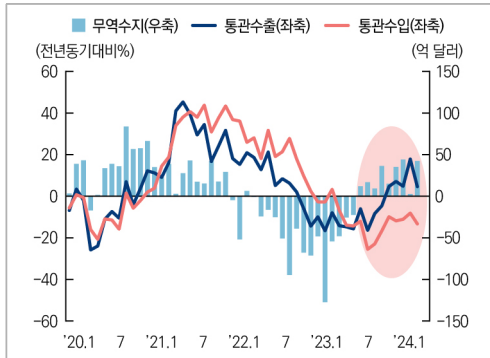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경기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하며 제자리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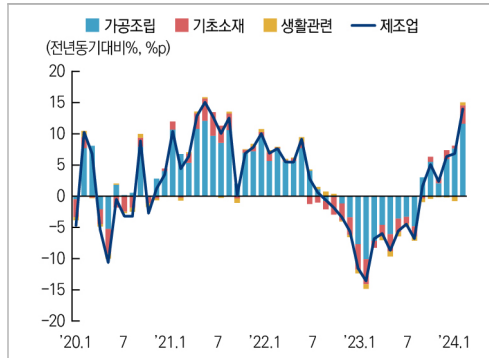
-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며 제조업 생산이 동반 증가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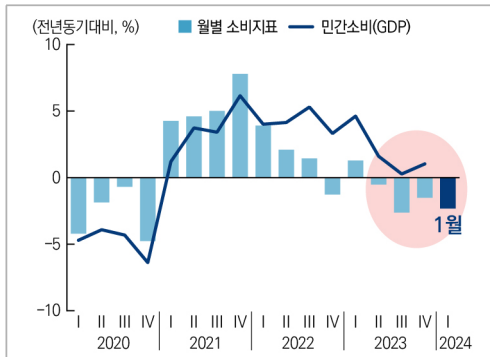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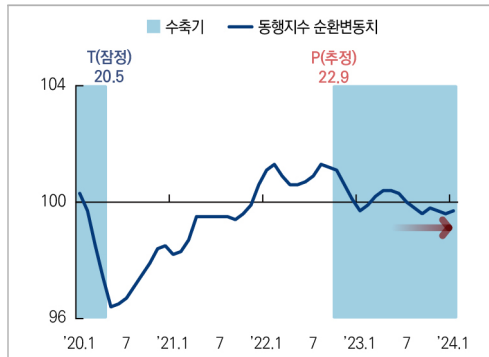
-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하면서 2023년 하반기 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 소비지표와 민간소비(GDP)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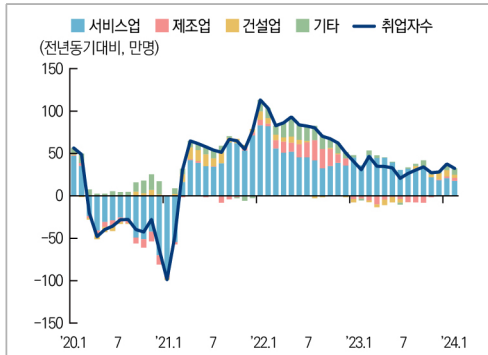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은 회복 흐름이 약화, 물가는 하향 안정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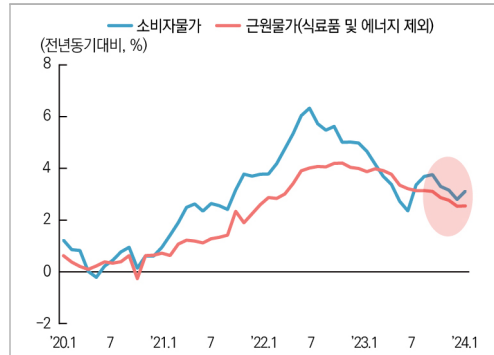
-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내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진 2023년 하반기 이후 축소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오름세가 진정되며 안정되는 모습

| 취업자 수 증감 |



자료: 통계청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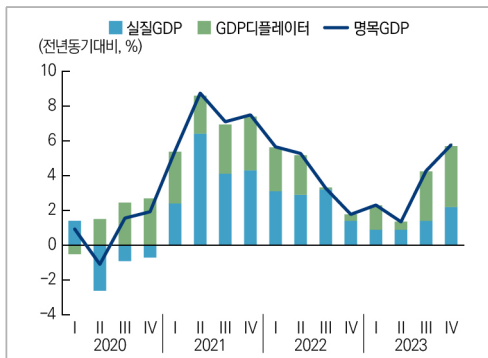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명목GDP는 2023년 하반기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5% 깜짝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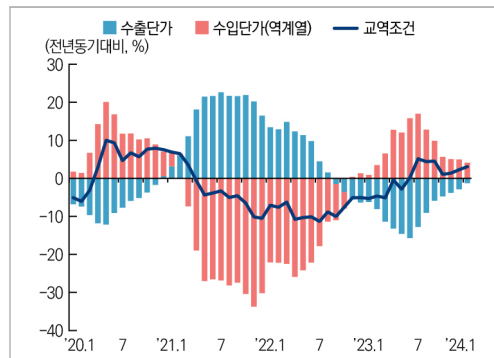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3.2%로 크게 확대
- 이는 하반기 들어 수입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품의 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교역조건이 상당 폭 개선된 데 기인

| 명목GDP 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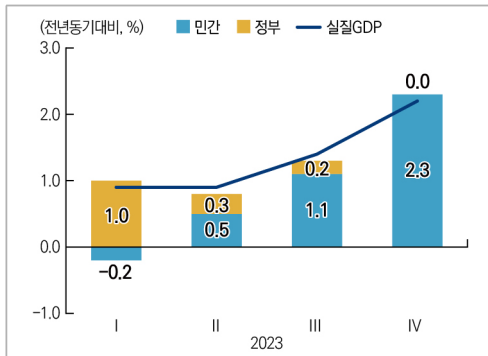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3년 하반기 정부부문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0.1%p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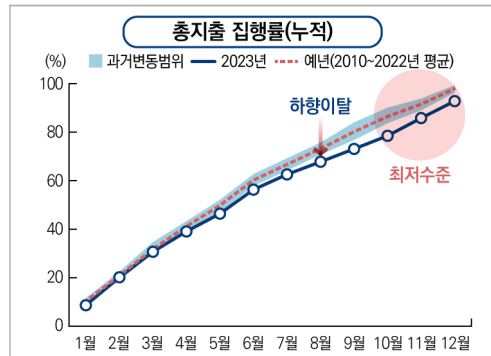
-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집행률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
-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등에 대한 보조금 및 경상이전지출 집행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Ⅰ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Ⅰ



자료: 한국은행

Ⅰ 재정집행률 추이 Ⅰ



주: 재정집행률 = 집행액/예산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 전망의 위험 요인

- (상방 요인) 반도체 수출 증가 및 생산 회복,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등
- (하방 요인)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실질 소득여건 악화, 재정지출 증가율 둔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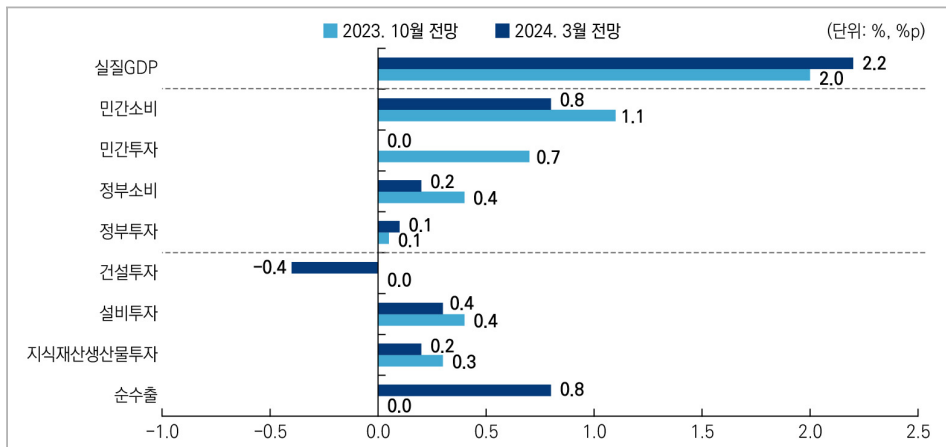
II. 지출 부문별 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은 2.2%로 지난 전망(‘23.10월)에 비해 0.2%p 상향

-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대외 부문에서 총수입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여건의 악화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누적된 가계의 이자 부담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2.2%→1.7%)하였고, 정부소비는 내수 부문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2024년 총지출 증가를 둔화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2.2%→1.2%)
- 건설투자는 건설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과 건설업 부실 대출 구조조정 등의 하방 요인을 반영하여 0.2%에서 -2.5%로 하향 조정
- 총수출은 둔화된 세계교역신장률 회복속도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7.0%→5.8%) 되었지만, 내수둔화를 반영한 총수입의 하향 조정(7.5%→3.9%)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2024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2. 경제성장률

□ 2024년 국내 경제는 2.2% 성장할 예상

- 2024년 실질GDP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며 2.2%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1.7% 증가할 전망
- 정부소비는 내수부진, 세수여건 악화 등을 반영하여 1.2% 증가로 전망
- 정부투자는 재정지출 증가율 둔화,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등을 감안하여 1.6% 증가할 전망
- 민간투자는 건설투자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증가율이 0.1%에서 정체
 - 유형별로는 건설투자 -2.5%, 설비투자 3.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 증가를 전망
- 총수출은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확대,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5.8% 증가할 전망
 - 총수입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3.9%에 머무를 전망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4%p로 전년(1.3%p)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p로 전년의 부진(0.0%p)에서 벗어날 전망

□ 명목GDP 성장률은 5.0%로 예상

-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3년에 비해 높아질 예상(실질GDP 1.4% → 2.2%, GDP디플레이터 2.1% → 2.8%)
- 교역조건은 상반기 중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빠른 개선 추이를 이어갈 전망

Ⅰ 2024 국내 경제전망 Ⅰ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2.6	1.4	2.4	2.1	2.2
최종소비	4.1	1.7	1.2	1.9	1.6
민간소비	4.1	1.8	1.2	2.2	1.7
정부소비	4.0	1.3	1.2	1.3	1.2
총고정투자	-0.5	1.1	0.0	0.6	0.3
주체별					
민간투자	0.4	0.9	-0.3	0.4	0.1
정부투자	-5.1	2.5	1.5	1.6	1.6
유형별					
건설투자	-2.8	1.3	-2.4	-2.6	-2.5
설비투자	-0.9	0.5	2.1	4.1	3.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1.6	2.4	3.2	2.8
총수출	3.4	3.1	7.2	4.5	5.8
총수입	3.5	3.1	4.2	3.7	3.9
경상수지(억달러)	258	355	286	274	560
상품수출(통관)	6.1	-7.5	9.8	7.1	8.4
상품수입(통관)	18.9	-12.1	-2.7	10.2	3.5
GDP디플레이터	1.3	2.1	3.6	2.0	2.8
소비자물가	5.1	3.6	2.8	2.4	2.6
명목 국내총생산	3.9	3.4	6.1	4.1	5.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Ⅰ 명목GDP 성장률 전망 Ⅰ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3.9	3.4	6.1	4.1	5.0
실질국내총생산	2.6	1.4	2.4	2.1	2.2
GDP디플레이터	1.3	2.1	3.6	2.0	2.8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1.7% 증가할 전망

- 2024년 민간소비는 2023년(1.8%) 대비 0.1%p 감소할 전망
 - 상반기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 가계의 소비 여건 개선의 하방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다만,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여 소비 제약 요인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4. 정부소비 및 투자

□ 정부소비는 1.2%의 낮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재정수입 여건 악화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재정 건전화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
 - 2024년 총수입(세입+기금수입)은 612.2조원으로 세입(-29.9조원)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5조원 감소
 -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23년(5.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특히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348.2조원(2.3%)으로 2023년(340.3조원, 12.2%)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
 - 다만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증가 추세로 회복되며 정부소비 증가를 견인할 전망

□ 정부투자는 1.6% 늘어날 전망

-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 2023년(2.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확정예산 기준 SOC(1.4조원), 환경(0.3조원), 국방(2.4조원), 공공질서·안전(1.5조원) 분야 등에서 예산 증가는 관련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 요인
 - 반면 R&D 분야는 전년 대비 4.6조원(14.7%) 줄며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감소 요인

5.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2.5% 감소할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2023년(1.3%) 대비 2.8%p 감소하여 큰 폭으로 둔화할 전망
 - 크게 부진했던 건설수주액 등 선행지표, 건설용 중간재의 높은 가격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진할 전망
 - 다만, 상반기 중 정부의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은 부진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상방요인

6.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3.1% 증가할 전망

- 2024년 설비투자는 2023년(0.5%) 대비 2.6%p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IT경기 회복에 따른 선제적 투자 수요, 주력업종 수출 호조,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연장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국내 경기둔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비용 상승 등은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8% 증가할 전망

-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3년(1.6%) 대비 1.2%p 증가할 전망
 -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8. 대외거래

□ 총수출(국민계정)은 5.8% 증가할 전망

- 2024년 총수출은 2023년(3.1%) 대비 2.7%p 증가할 전망
 - 세계 수입수요 확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은 전망의 상방요인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전망의 하방요인

□ 총수입(국민계정)은 3.9% 증가할 전망

- 2024년 총수입은 2023년(3.1%) 대비 0.8%p 증가할 전망
 - 수출확대로 인해 늘어난 수입수요는 전망의 상방요인이나 둔화된 내수 상황은 전망의 하방요인
 - 지난해 늘어난 해외여행 등 서비스 수입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9.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023년(3.6%) 대비 1.0%p 하락할 전망
 -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높은 물가지속성, 공공요금 인상 등이 소비자물가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제 I 부 동향

제1장 세계 경제	3
제2장 국내 경제	18

제 II 부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41
제2장 경제성장률	43
제3장 민간소비	47
제4장 정부소비 및 투자	54
제5장 건설투자	61
제6장 설비투자	66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1
제8장 대외거래	73
제9장 소비자물가	80

제 III 부 국제비교

제1장 경제성장률	89
제2장 소비	92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94
제4장 대외거래	96

BOX 차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13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25
[BOX 3] 재정집행률로 살펴본 2023년 예산 불용	35
[BOX 4] 고금리와 민간소비	52
[BOX 5] 수입의존도로 평가해 본 우리나라 수입구조 취약성	77
[BOX 6] 고물가와 민간소비	84



[제 I 부]

[표 I-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8
[표 I-2] 2024년 세계의 주요 선거 일정	17
[표 I-3]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30
[표 I-4] 2024년 예산과 재정운용	32
[표 I-5] 정부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33
[표 I-6] 2024년 2월 재정지출 항목별 집행률	33

[제 II 부]

[표 II-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42
[표 II-2] 2024 국내 경제전망	45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45
[표 II-4]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과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	50
[표 II-5]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예산 규모	57
[표 II-6] 2024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7
[표 II-7] 2023~202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59
[표 II-8] 2024년 분야별 중앙정부 예산	60
[표 II-9]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추이	62
[표 II-10]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 추이	63
[표 II-11] 건설업 일평균 임금 현황	64
[표 II-12]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	65
[표 II-13] SOC 예산 현황	65
[표 II-14] 2024년 설비투자 관련 정책지원	69
[표 II-15] 2024년 주요 농산품 국내 생산 전망	81
[표 II-16] 2024년 공공요금 인상 현황	82

[제 Ⅲ 부]

[표 Ⅲ-1] 주요국 실질GDP 성장률 추이	91
[표 Ⅲ-2]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92
[표 Ⅲ-3] 국가집단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94
[표 Ⅲ-4] 국가집단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95
[표 Ⅲ-5]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98



[제 I 부]

[그림 I -1]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3
[그림 I -2] OECD 경기선행지수	4
[그림 I -3] 세계 전산업 PMI	5
[그림 I -4]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5
[그림 I -5] 글로벌 인플레이션	5
[그림 I -6] 주요국의 정책금리	6
[그림 I -7]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6
[그림 I -8]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추이	6
[그림 I -9]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7
[그림 I -10]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	7
[그림 I -11] 세계 교역량 전망	9
[그림 I -12] 수출물량(상품+서비스) 전망	9
[그림 I -13]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10
[그림 I -14] 선진국과 개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10
[그림 I -15] 국제유가 전망	11
[그림 I -16] 국제유가 전망	12
[그림 I -17]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12
[그림 I -18] 기타 원자재가격 전망	12
[그림 I -19]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15
[그림 I -20]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15
[그림 I -21]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15
[그림 I -22]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15
[그림 I -23] 엘니뇨 발생확률	16
[그림 I -24]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16

[그림 1-25] 실질GDP 성장률 추이	18
[그림 1-26]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19
[그림 1-27]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19
[그림 1-28] 명목GDP 성장률 추이	20
[그림 1-29]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20
[그림 1-30]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21
[그림 1-31]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21
[그림 1-32]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21
[그림 1-33]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21
[그림 1-34]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2
[그림 1-35] 제조업 재고순환선	22
[그림 1-36]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23
[그림 1-37]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23
[그림 1-38]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24
[그림 1-39]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24
[그림 1-40]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24
[그림 1-41]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24
[그림 1-42] 경상수지 추이	26
[그림 1-43]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26
[그림 1-44]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27
[그림 1-45] 출입국자 수 추이	27
[그림 1-46]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27
[그림 1-47] 취업자 수 증감	28
[그림 1-48]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28
[그림 1-49]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29



[그림 Ⅰ-50]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29
[그림 Ⅰ-51]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29
[그림 Ⅰ-52]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31
[그림 Ⅰ-53] 재정집행률 추이	31
[그림 Ⅰ-54] 지출 항목별 과거 집행패턴	33
[그림 Ⅰ-55] 가계 등 경상이전 월간 집행률	34
[그림 Ⅰ-56] 자본지출 월간 집행률	34

[제 Ⅱ 부]

[그림 Ⅱ-1] 2024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42
[그림 Ⅱ-2]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44
[그림 Ⅱ-3]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46
[그림 Ⅱ-4]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46
[그림 Ⅱ-5] 민간소비 전망	48
[그림 Ⅱ-6] 민간소비 증감률 기여도	48
[그림 Ⅱ-7] 재화형태별 소비 추이	48
[그림 Ⅱ-8] 임금(명목, 실질) 증감률	49
[그림 Ⅱ-9]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49
[그림 Ⅱ-10] 산업별 실질임금 상승률 Ⅰ	49
[그림 Ⅱ-11] 산업별 실질임금 상승률 Ⅱ	49
[그림 Ⅱ-12] 가계 신용 증감 추이	50
[그림 Ⅱ-13]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	50
[그림 Ⅱ-14] 내국인 출국자 수 및 거주자 국외소비 회복 추이	51
[그림 Ⅱ-1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51
[그림 Ⅱ-16] 연별 실질정부소비 증가율	55

[그림 II-17] 분기별 실질정부소비 증가율	55
[그림 II-18] 성질별 미집행액 추이	56
[그림 II-19] 통합재정 상 경상지출 집행률	56
[그림 II-20] 건강보험 급여비 연별 지출 증가율	58
[그림 II-21] 건강보험 급여비 분기별 지출 증가율	58
[그림 II-22] 정부소비디플레이터의 분기별 증가율 추이	58
[그림 II-23]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증감률 추이	60
[그림 II-24] 건설투자 전망	61
[그림 II-25] 건설투자 증감률 기여도	62
[그림 II-26] 용도별 건물건설 증감률 기여도	62
[그림 II-27] 건축허가면적 추이	63
[그림 II-28]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63
[그림 II-29] 건설용 중간재 가격지수 추이	64
[그림 II-30]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64
[그림 II-31]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65
[그림 II-32]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 추이	67
[그림 II-33]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67
[그림 II-34]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67
[그림 II-35] 반도체 수출 추이	68
[그림 II-36] 2024년 수출입 전망	68
[그림 II-37] 2024년 업종별 수출 증감률 전망	68
[그림 II-38]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0
[그림 II-39] 설비투자 부진 요인	70
[그림 II-4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유형별 기여도	71
[그림 II-4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서비스업 추이	71



[그림 II-42] GDP 연구개발 및 기업매출액 추이	72
[그림 II-4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수 추이	72
[그림 II-44] 2024년 수출전망	74
[그림 II-45] 주요 품목별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74
[그림 II-46] 2024년 수입전망	74
[그림 II-47]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74
[그림 II-48] 메모리반도체 유형별 수출증가율	75
[그림 II-49] 최근 국가별 수출증가율	75
[그림 II-50] 유형별 수입증가율	76
[그림 II-51] 원유수입가격 추이	76
[그림 II-52]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분해	81
[그림 II-53]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82
[그림 II-54] 국제유가 추이	83
[그림 II-55] 원/달러 환율 추이	83
[그림 II-56] 기대인플레이션율	83

[제 III 부]

[그림 III-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89
[그림 III-2] 주요 선진국 성장률(I)	90
[그림 III-3] 주요 선진국 성장률(II)	90
[그림 III-4] 주요 개도국 성장률(I)	91
[그림 III-5] 주요 개도국 성장률(II)	91
[그림 III-6]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I	92
[그림 III-7]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	93
[그림 III-8]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II	93

[그림 Ⅲ-9] 주요국 서비스업 PMI 추이	93
[그림 Ⅲ-10] 주요국 물가 전망	93
[그림 Ⅲ-11]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94
[그림 Ⅲ-12]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95
[그림 Ⅲ-13]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	96
[그림 Ⅲ-14] 세계 및 우리나라 수입	96
[그림 Ⅲ-15] 주요국 통관수출증가율 추이	97
[그림 Ⅲ-16] 주요국 통관수입증가율 추이	97
[그림 Ⅲ-17] 2024년 주요국 총수출전망	99
[그림 Ⅲ-18] 2024년 주요국 총수입전망	99

지출 부문



동향

I

제1장 세계 경제

제2장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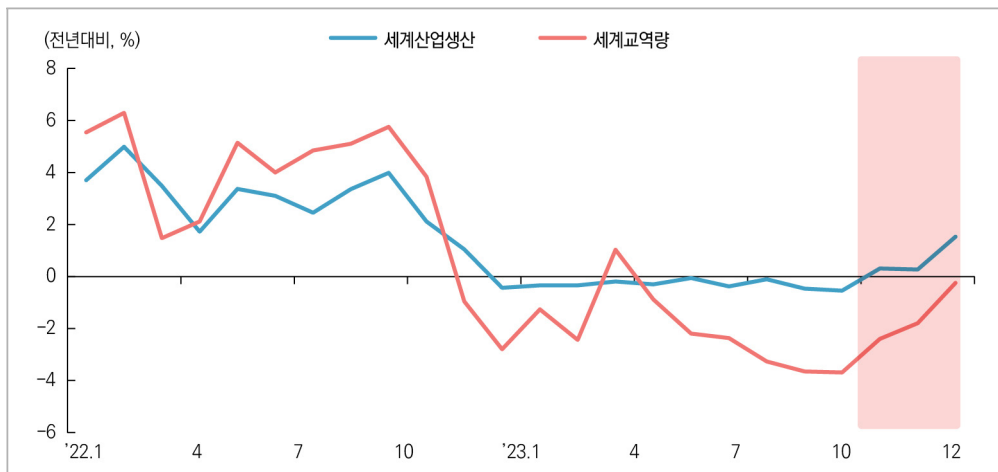
제1장 세계 경제

제1절 최근 세계 경제 동향

- ▶ 세계 경제는 생산과 교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기조 지속
- ▶ 국제 원자재가격은 안정세

최근 세계 경제는 산업생산과 교역의 둔화세가 완화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로지역의 성장세 약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2022년 11월 이후 생산이 둔화되고 상품 교역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023년 4분기 들어 산업생산은 증가 전환되고 교역량 감소 폭은 빠르게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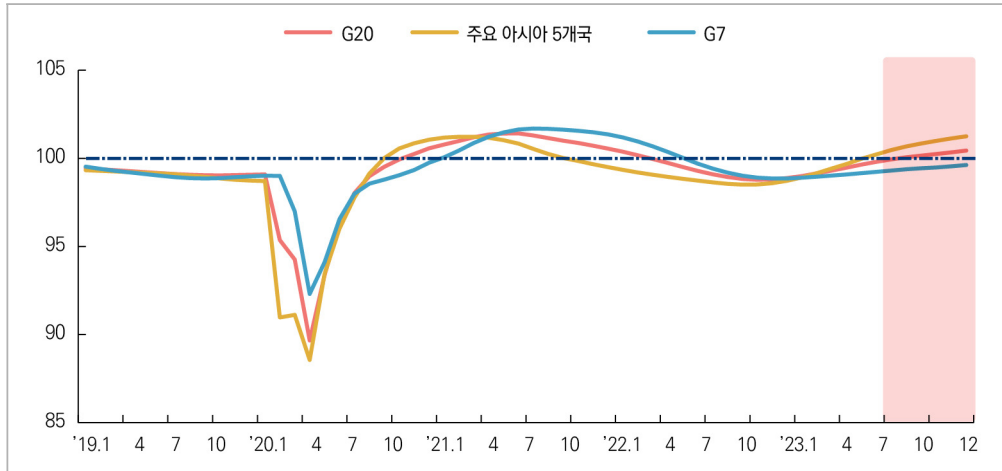
| 그림 I-1 |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자료: CPB(Central Planning Bureau,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청)

향후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주요 월간 선행지표에서도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선행)는 2022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주요 아시아 5개국과 G20은 2023년 하반기 이후 기준선(100)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그림 1-2 |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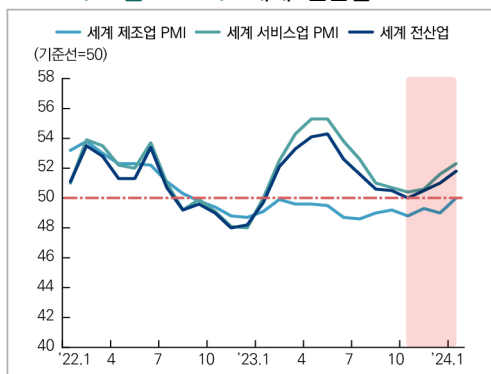


주: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세계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¹⁾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제조업 PMI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기준선(50)을 하회하였으나 2024년 들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기록하였다. 개도국은 기준선(50)을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며 2024년 1월 들어 전월에 비해 큰 폭(47.0→48.9)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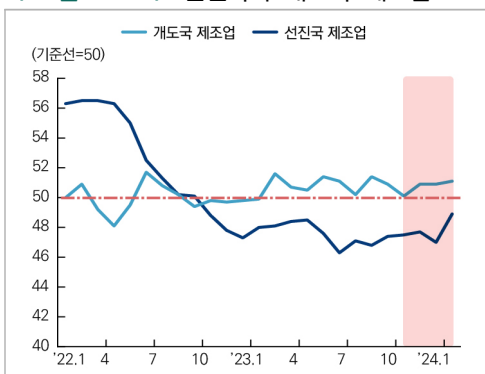
1)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 그림 I-3 | 세계 전산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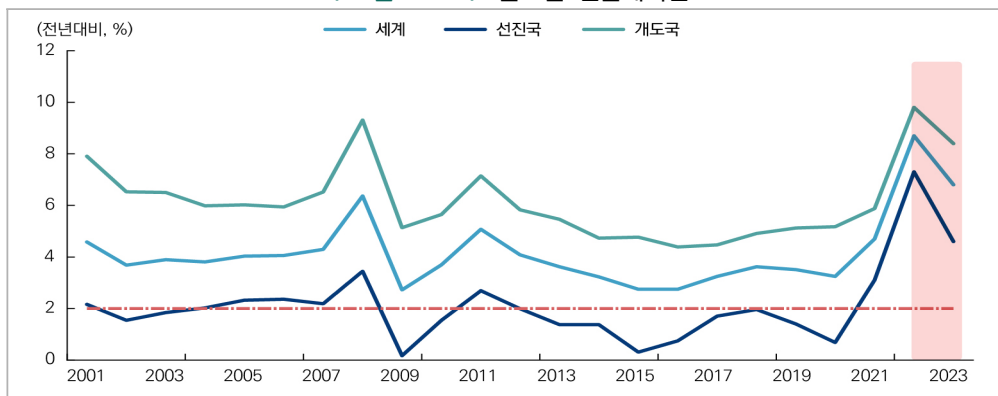
| 그림 I-4 |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긴축과 공급측 불안요인 해소 등이 맞물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8.7%에서 2023년 6.8%로 둔화되었고, 동기간 선진국은 7.3%에서 4.6%, 개도국은 9.8%에서 8.4%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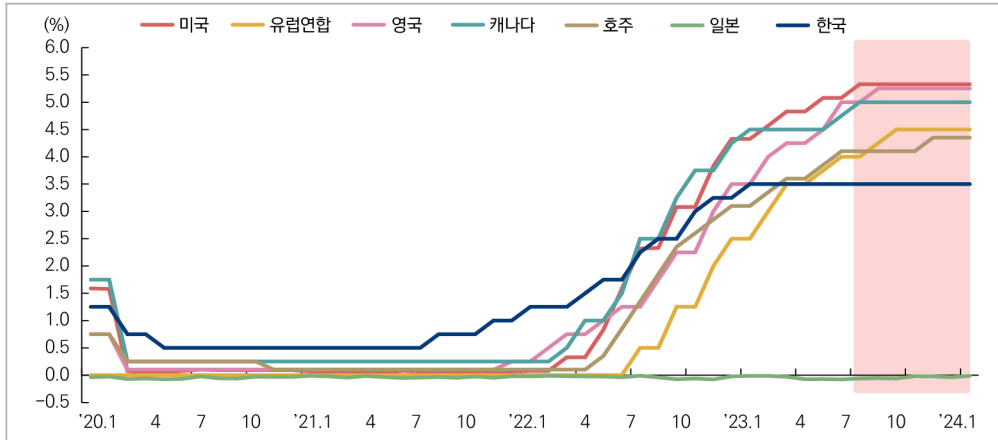
| 그림 I-5 |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CEIC, IMF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제한적인 수준까지 인상하였고 최근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2022년 초까지 0%대 수준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 이후 현실화한 물가 상승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5%~5.5%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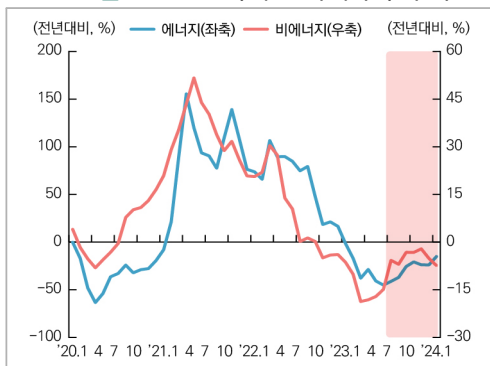
그림 I-6 | 주요국의 정책금리



주: 미국은 정책금리 상한과 하한 평균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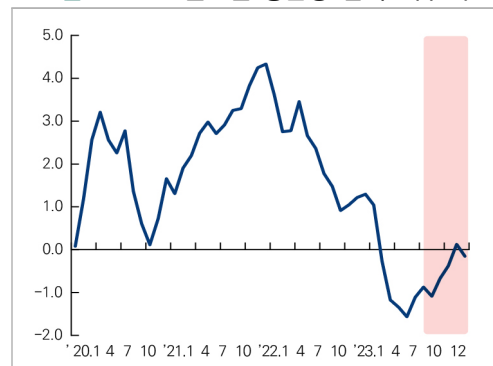
국제원자재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던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은 하락 전환되어 2023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29% 하락하였다. 농산물, 금속 등의 비에너지 가격은 2022년 4분기 이후 하락 전환되어 2023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4% 하락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은 공급량 및 운임, 배송시간 등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전쟁, 홍해 지역의 후티 반군 공격 등으로 일시적인 해상 공급망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I-7 |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그림 I-8 |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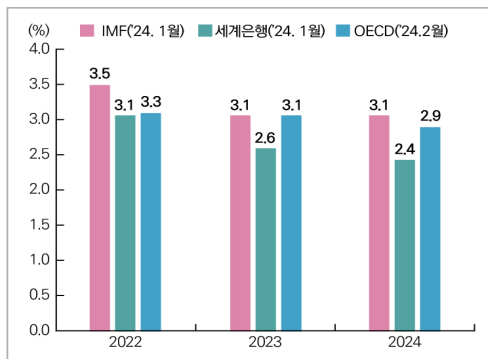
주: 단위는 평균으로부터의 표준편차임
 자료: 미 FRB New York,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제2절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량은 각각 2.8% 증가
-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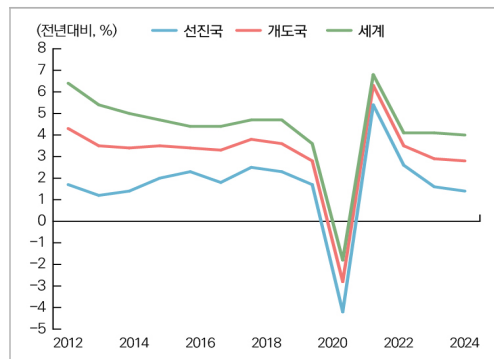
2024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 3.8%를 큰 폭으로 밑도는 성장세이며, 팬데믹 이전 5년(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로 전년(2.9%)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그림 I-9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그림 I-10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선진국 경제는 2024년 1.4% 성장하여 2023년(1.6%)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시장 호조세, 견실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에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미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효과,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 저축 소진 등으로 전년보다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독일 경제가 중국 등 해외수요 부진에 따른 관련 경기침체와 역성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영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3년 중 완화적인 경제정책, 관광업 호조,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로 회귀할 전망이다.

개도국 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성장세가 예상되며, 지역별로 성장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반면 인도,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은 수출 개선세가 미진한 가운데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과 관련 고정투자 위축 등으로 2024년에는 5%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회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예상보다 양호한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24년에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석유생산 부문에서 관련 투자가 늘며²⁾ 성장률을 견인할 전망이다.

표 I-1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세계 경제 성장률	3.5	2.9	2.8
선진국	2.6	1.6	1.4
미국	2.1	2.5	1.9
유로지역	3.3	0.5	0.7
독일	1.8	-0.2	0.4
영국	4.3	0.4	0.7
일본	1.0	1.9	0.9
개도국	4.1	4.1	4.0
중국	3.0	5.2	4.6
인도	7.2	6.5	6.5
러시아	-1.2	3.0	2.6
브라질	2.9	3.1	1.7
중동·중앙아시아	5.5	2.0	2.9

주: 1) 2023년과 2024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은 IMF('24.1월), OECD('24.2월), WB('24.1월) 전망치 평균

2) 선진국과 개도국은 IMF('24.1월), WB('24.1월) 평균

3) 독일, 영국은 IMF('24.1월), OECD('24.2월) 평균

4) 인도는 IMF('24.1월), WB('24.1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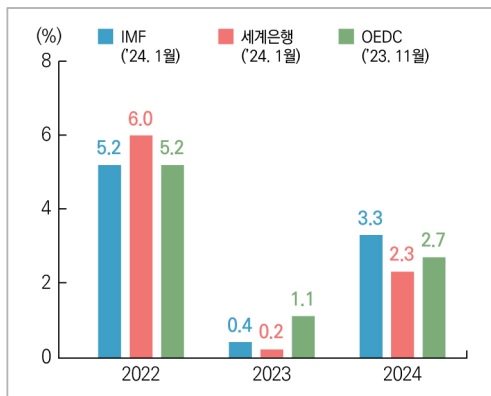
5) 러시아, 브라질, 중동·중앙아시아는 IMF('24.1월) 전망치

자료: IMF('24.1월), OECD('24.2월), WB('24.1월) 세계 경제 전망

2)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움시티, 로신, 홍해프로젝트, 다리아 등 14개 기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약 1조 2,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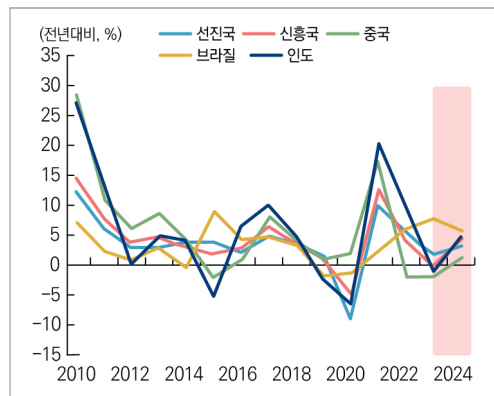
세계 교역량은 202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의 증가세³⁾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023년 세계 교역은 국내 서비스 위주의 수요 확대와 강달러로 인한 달러 표시 상품수요 위축, 무역 장벽 증가⁴⁾ 등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2년 5.6%에서 0.6%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가와 신흥국의 수출물량 회복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이 2.8%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물량 증가율은 2023년 0.1%에서 2024년 3.0%로 상승하고 브라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0.1% 감소에서 2024년 4.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1.8% 감소에서 2024년 1.1%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림 I-11 | 세계 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그림 I-12 | 수출물량(상품+서비스) 전망



자료: IMF(23. 10월)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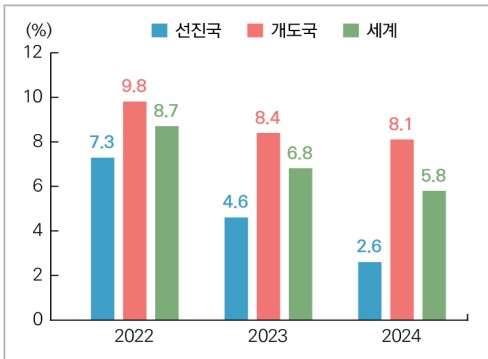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내림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여부와 둔화 속도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좌우할 요인이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7%, 2023년 6.8%에서 2024년 5.8%로 하락할 전망이며, 2025년에도 4.4%로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효과적인 통화정책, 환율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2022년 7.3% → 2023년 4.6%)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3) 2015~2019년 중 세계교역량은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4) IMF의 추산(IMF, WEO(2023.10월), p.18)에 따르면 2022년 주요국에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들이 부과되었고, 이는 2019년 1,000개 이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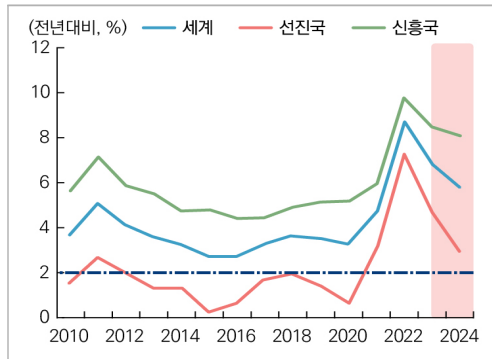
2.6%로 보다 완만하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더딜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8%에서 2023년 8.4%, 2024년 8.1%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이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림 I-1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24.1월) 세계경제전망

| 그림 I-14 | 선진국과 개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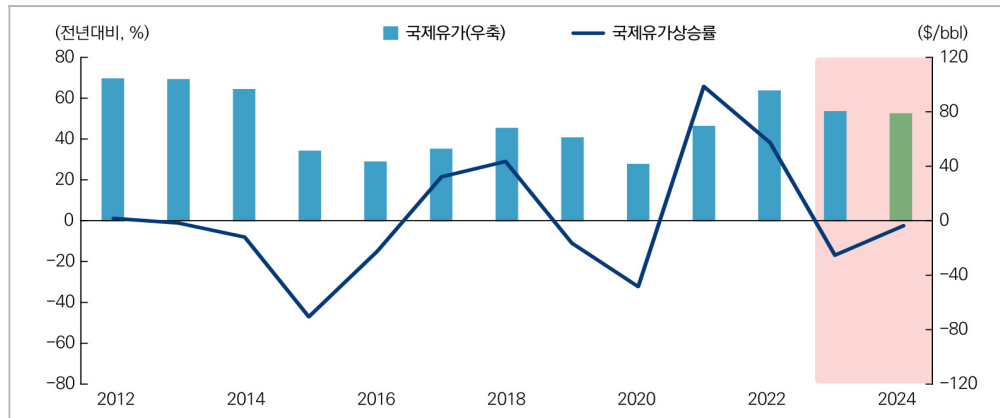


제3절 국제 원자재가격

- ▶ 2024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로 전제
- ▶ 곡물 등 기타 원자재가격은 전년 대비 2.0% 하락 예상

국제유가는 2023년에는 전년(배럴당 97달러) 대비 16.4%(배럴당 81달러)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배럴당 79달러 수준(전년대비 -2.4%)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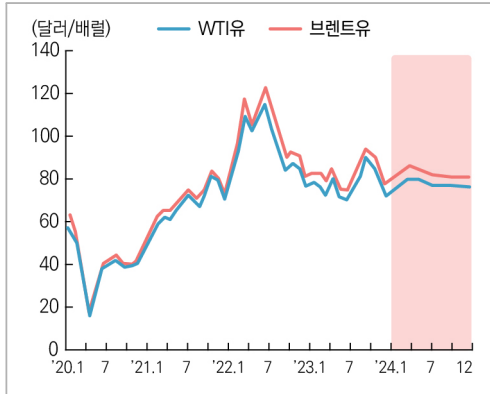
| 그림 I-15 | 국제유가 전망



주: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유 평균 기준
자료: IMF, W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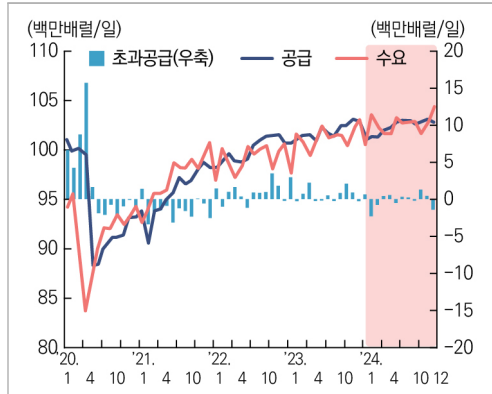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OPEC+) 공급증가 등으로 최근까지 하락하였으나, 홍해지역 등 중동 지역 불안 요인 확산 등으로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는 계절적 수요 증가와 OPEC+의 감산 연장 등으로 완만한 상승압력을 받다 2분기 이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 금융여건 완화와 수요 회복,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16 | 국제유가 전망



주: 음영부분은 미 EIA의 2024.1월 전망
자료: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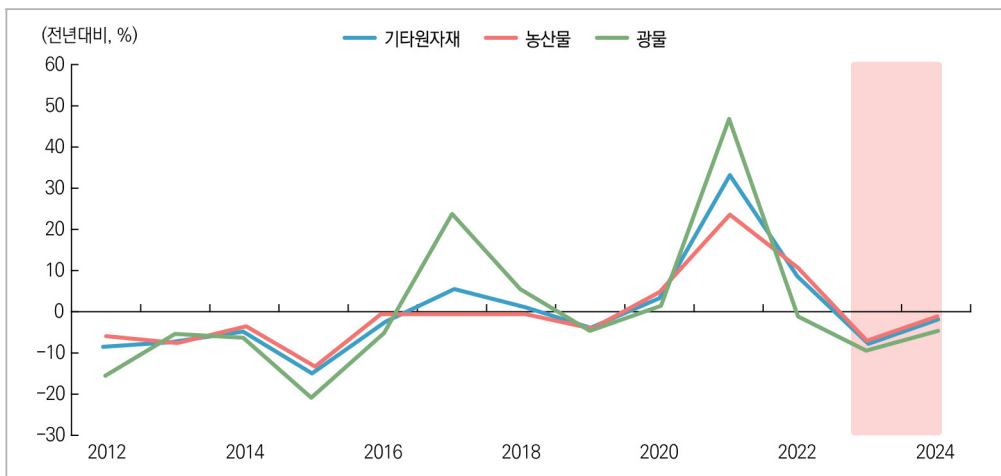
그림 I-17 | 전세계 석유 수급 전망



자료: EIA

기타원자재는 2.0% 하락하여 전년(-8.0%)보다 하락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농산물과 금속광물 원자재는 2023년 각각 전년대비 7.2%, 9.6%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1.5%, 4.8% 하락할 전망이다. 2024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전년 보다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유, 농산물, 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핵심 자원 전략 무기화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18 | 기타 원자재가격 전망



자료: IMF, WB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2024년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전제치 |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세계 경제 성장률	3.3	2.9	2.8
- IMF(2024.1)	3.5	3.1	3.1
- World Bank(2024.1)	3.0	2.6	2.4
- OECD(2024.2)	3.3	3.1	2.9
세계 교역량 증가율	5.5	0.6	2.8
- IMF(2024.1)	5.2	0.4	3.3
- World Bank(2024.1)	6.0	0.2	2.3
- OECD(2023.11)	5.2	1.1	2.7
국제유가(USD/bbl) ¹⁾	97.1	81.0	79.0
- IMF(2024.1)	39.2	-16.0	-2.3
- World Bank(2024.1)	41.8	-16.7	-2.5
기타 원자재가격	9.3	-8.0	-2.0
금리(국고채 3년물) ²⁾	3.2	3.5	3.0

주: 1)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유 평균 기준

2)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OECD, IMF, World Bank

- 정부(2024.1월 전망)
 - 세계 경제는 IMF(2023.10월) 전망치 이용(2023년 3.0%, 2024년 2.9%)
 - 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3년 82, 2024년 81
- 한국은행(2024.2월 전망)
 - 세계 경제 성장률: 2023년 3.1%, 2024년 3.0%
 - 세계 교역량: 2023년 0.4%, 2024년 3.2%
 - 유가(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2023년 82, 2024년 83

제4절 전망의 위험 요인

▶ 전망의 위험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기조의 조기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의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상승과 통화 긴축기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경학적 분열 가속화와 세계교역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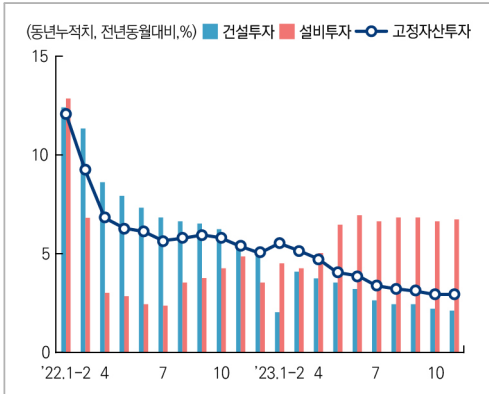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성장의 상하방 위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2023년에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⁵⁾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줄고,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예상보다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과 경기 연착륙에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수요 둔화와 원자재 수출국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자산관리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경우⁶⁾ 중국의 고정투자 관련 내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신흥국의 환율 불안과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5)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스위스 크레딧스위스 파산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대되었으나, 미연준의 신속한 대응과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 등으로 빠르게 진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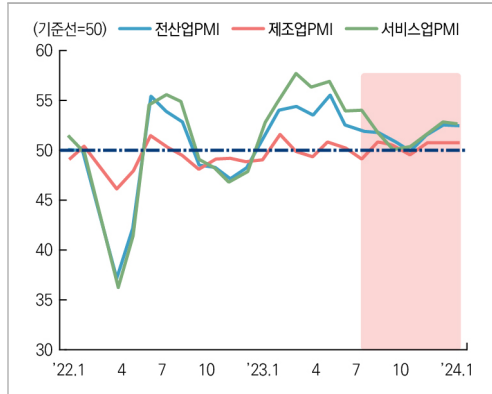
6)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선언했고, 최근에는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 금융회사인 증즈그룹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 규모는 2,674억 위안으로 전체 부동산 채권의 26.8%에 달한다. 당국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난 비제도권 금융기업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발 위험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19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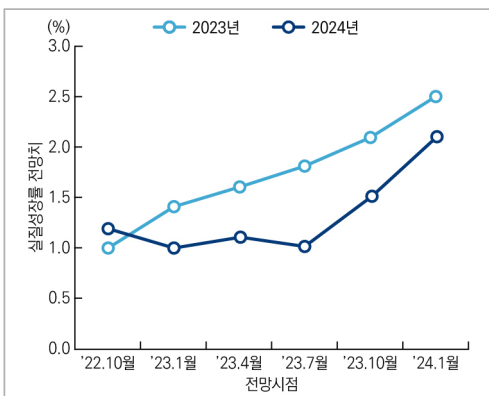
| 그림 I-20 |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주: Caixin Composite, Manufacturing, Services PMI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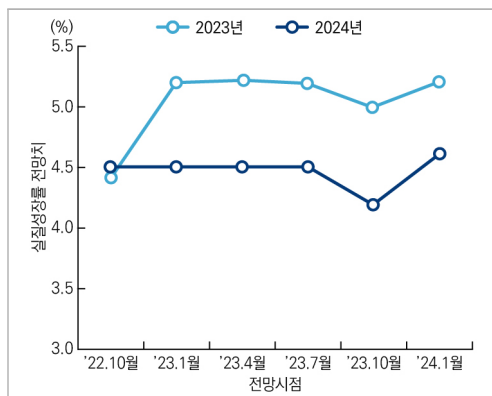
주요국별로 보면 유로지역과 중국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드러진다. 2023년에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세계 경제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에는 1.9%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나, 회복세를 지속하며 예상보다 완만한 성장 둔화로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세계 경제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그림 I-21 |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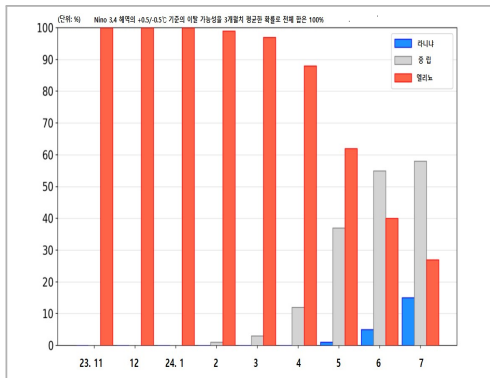
| 그림 I-22 |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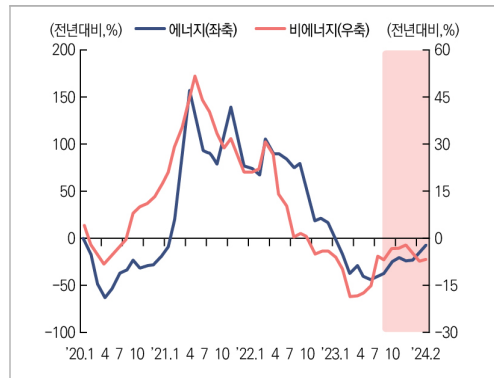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목할 위험 요인은 기상이변, 지정학적 불안 요인, 핵심 원자재와 전략 물품 등을 둘러싼 공급망 블록화 심화 등으로 식량, 광물, 에너지 등의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음료 관련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⁷⁾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사태 격화 등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식량과 비료 등의 원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희토류, 반도체 등 일부 전략품목을 둘러싼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공급망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국제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세계 경기가 일시에 가파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 그림 I-23 | 엘니뇨 발생확률



주: 2023년 11월 기준 전망(3개월 이동평균값)
자료: CPC Probabilistic ENSO Outlook

| 그림 I-24 |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선거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지경학적 (geoeconomic) 영향의 불확실성이다. 2024년은 세계적으로 선거가 유난히 많은 해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인도, 대만, 영국, EU 등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정치지형을 판가름할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 및 각국의 경제정책이 크게 바뀌고 세계 공급망과 무역 기조, 나아가 세계교역량 등에 대한 지경학적(geoeconomic)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7) NABO 경제동향(제40호) “[BOX2] 기후변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25페이지) 참조

| 표 I-2 | 2024년 세계의 주요 선거 일정

시 기	선거 내용
1월	○ 대만 총통 선거, 핀란드 대선
2월	○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파키스탄 총선
3월	○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이란 총선
4월	○ 한국, 인도 총선
5월	○ 영국 총선(예상)
6월	○ 유럽의회 선거, 멕시코 대선, 벨기에 총선
9월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 미국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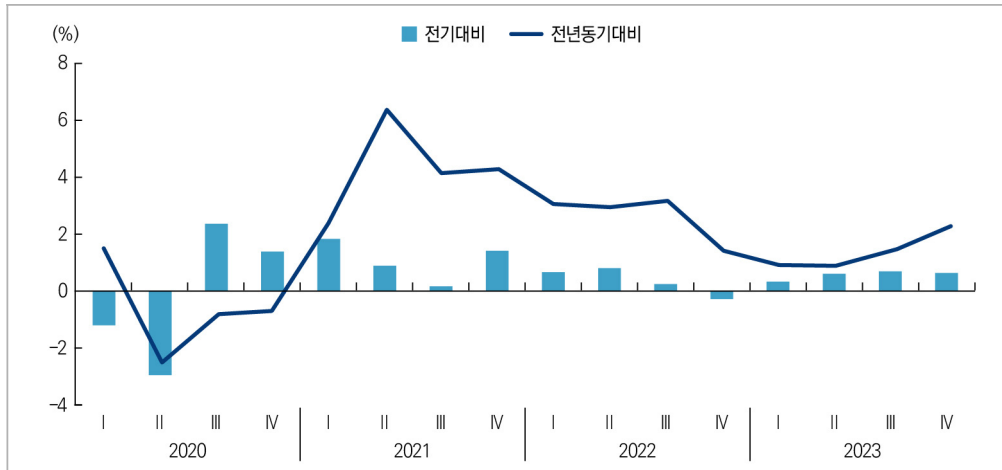
제2장 국내 경제

제1절 경제성장률

- ▶ 2023년 국내 경제는 하반기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
- ▶ 경기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하며 제자리걸음

국내 경제는 2023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며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를 이끌던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며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실질GDP 성장률은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여 상반기의 0.9%를 크게 앞섰다.⁸⁾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4%로 2022년의 2.6%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

| 그림 I-25 |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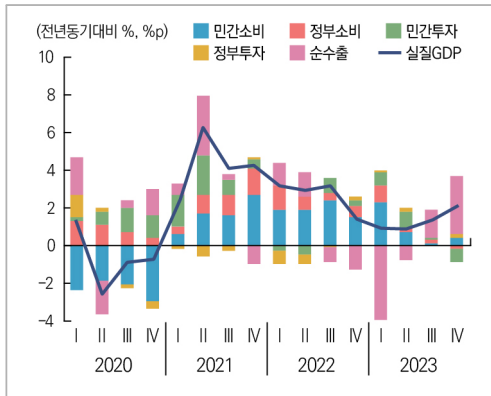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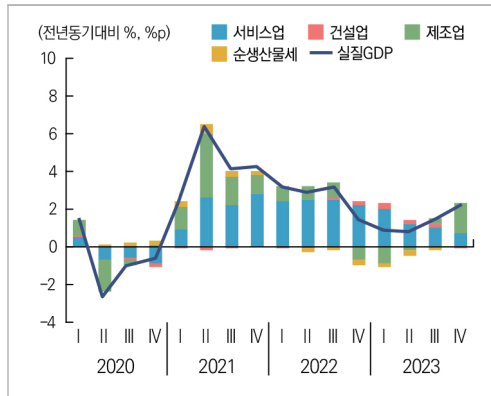
8) 계절변동 조정계열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2분기 이후 계속 0.6%에 머물고 있다. 이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내수가 빠르게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I-26 |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27 |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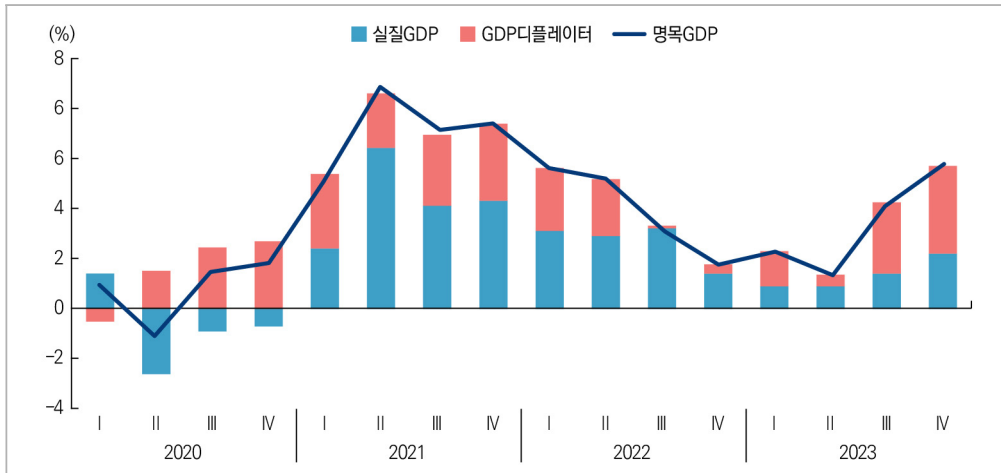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상반기 중 3.1% 증가하면서 내수 성장을 이끌었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0.6%로 낮아졌다. 민간투자는 상반기 중 세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3.1%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설비투자가 부진(-3.9%)해지면서 0.6% 감소로 돌아섰다.⁹⁾ 정부소비도 증가율이 상반기 2.5%에서 하반기 0.0%로 낮아졌다. 정부투자는 상하반기 비슷한 증가세(2.7%와 2.4%)를 보였다.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하반기 중 6.9% 증가하며 상반기의 부진(-0.9%)에서 벗어났다. 반면 총수입은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하반기 증가율이 1.9%로 낮아졌다(상반기 4.4% 증가).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상반기 마이너스 2.5%p에서 하반기 플러스 2.3%p로 크게 높아졌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성장세가 낮아졌고, 제조업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 중 성장세가 큰 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0.6%p에서 하반기 1.0%p로 한층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기여도가 같은 기간 중 1.6%p에서 0.9%p로 낮아졌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3.4%로 2022년의 3.9%(연간)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1.3%p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다.

9) 2023년 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의 여유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활용하면서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같은 요인의 영향이 사그라졌다.

| 그림 I-28 |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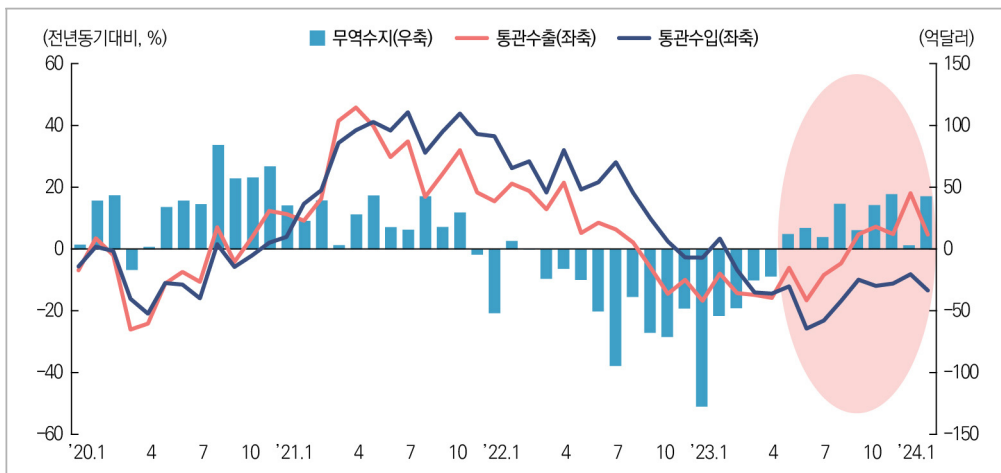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 경기국면 진단

국내경기는 2023년 하반기 중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며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9월 이후 수출과 함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최근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낮아져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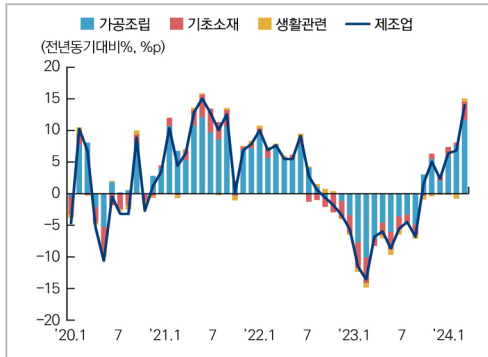
| 그림 I-29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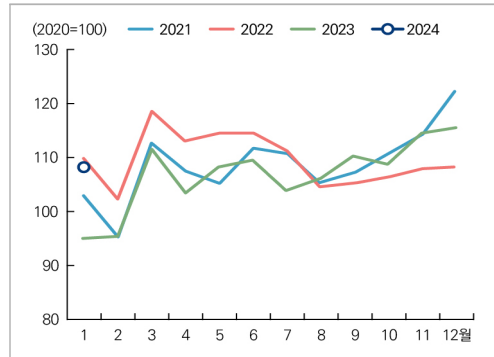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은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가공조립형 제조업¹⁰⁾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다만 내수와 밀접한 생활관련형 제조업은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 제조업 생산 수준은 2023년 중 2021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 그림 I-30 |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I-31 |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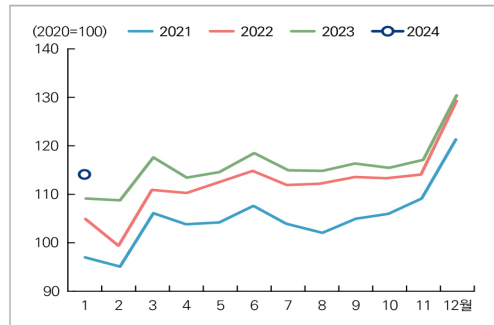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하반기 들어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유형별로도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업¹¹⁾ 모두에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약화하였다. 서비스업의 생산 수준도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줄어 2023년 12월에는 2022년과 거의 같아졌다.

| 그림 I-32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I-33 |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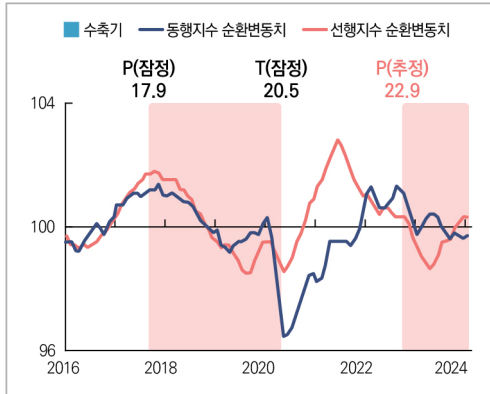
10)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축,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58.2%, 29.1%, 8.0%이다(통계청,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11)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대면(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비대면(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사회 서비스,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27.2%, 72.8%이다(통계청, 같은 자료).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반기 중 계속 내리막이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반대로 4월 이후 계속 상승하여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또 다른 경기 예고지표인 제조업 재고순환선(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반도체 재고순환선은 4월 이후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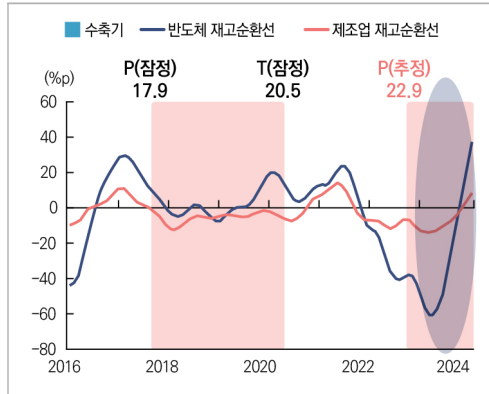
종합하면,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둔화하면서 전반적인 경기상황은 하향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경기예고지표들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 그림 I-34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I-35 | 제조업 재고순환선



주: 1) 재고순환선 = 출하증가율 - 재고증가율 (X-12에 의한 추세순환 요인 추정치 기준)
 2)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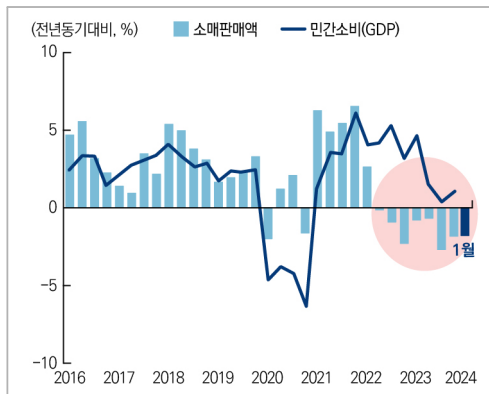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 ▶ 내수는 둔화 움직임이 뚜렷
-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
- ▶ 수입은 감소 폭이 축소
-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흑자 폭 확대
-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 유지

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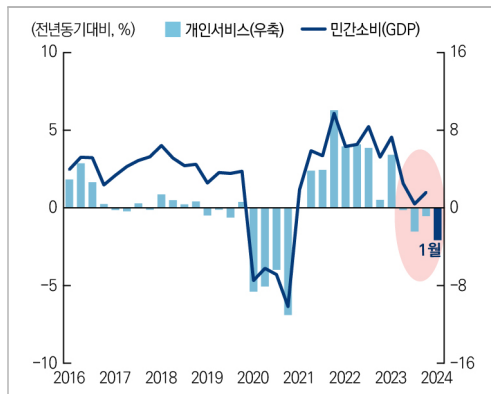
소비지표들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하였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¹²⁾도 2023년 2분기부터 증가율이 하락 반전하여 3분기 연속 감소하였다(아래 오른쪽). 이는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제약 요인들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림 I-36 |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I-37 |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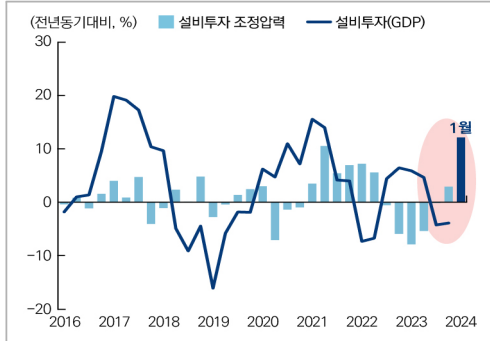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2)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수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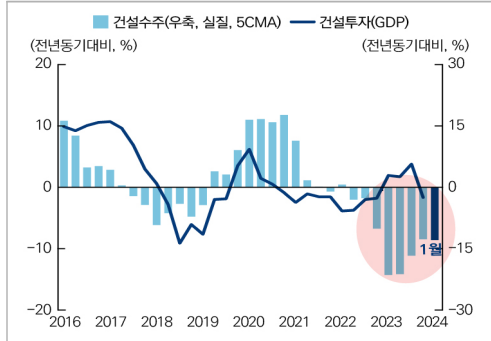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은 7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두 지표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 평균 1분기와 5분기 정도 앞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예정이다.

| 그림 I-38 |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I-39 |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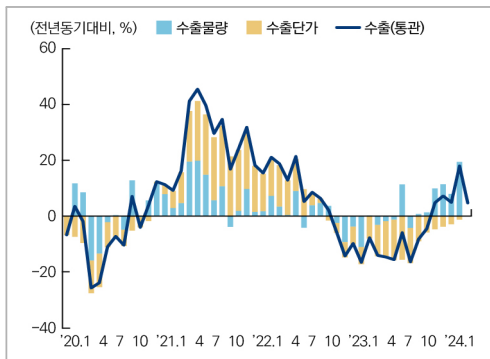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5분기 중심항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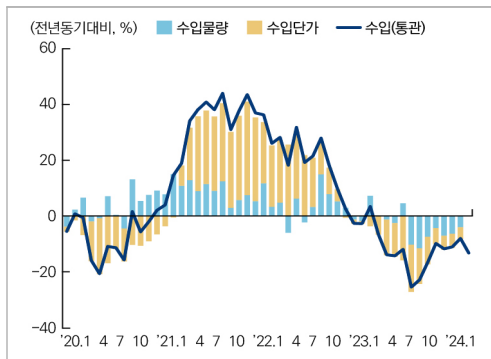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단가 하락 폭이 줄어들고 수출물량(실질금액)도 2023년 4분기 증가율이 두 자릿수까지 높아졌다.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같은 기간 감소 폭이 축소되었다. 수입단가 증가율은 7월 이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으나, 수입물량(실질금액) 증가율은 내수 둔화를 반영하여 마이너스 폭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 그림 I-40 |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I-41 |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품목명	2022		2023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반도체	1.0	18.9	-23.7	15.6	-3.7
2	자동차	16.4	7.9	31.1	11.2	3.5
3	일반기계	2.0	7.5	4.6	8.5	0.4
4	석유제품	64.9	9.2	-17.0	8.2	-1.4
5	석유화학	-1.4	7.9	-15.9	7.2	-1.1
6	철강제품	5.7	5.6	-8.4	5.6	-0.5
7	자동차부품	2.4	3.4	-1.5	3.6	-0.1
8	선박	-20.9	2.7	20.9	3.5	0.7
9	디스플레이	-1.1	3.1	-12.1	2.9	-0.4
10	무선통신기기	-10.4	2.5	-10.2	2.4	-0.2
11	바이오헬스	0.1	2.4	-18	2.1	-0.4
12	섬유	-4.0	1.8	-11.2	1.7	-0.2
13	이차전지	15.1	1.5	-1.5	1.6	0.0
14	가전	-7.4	1.2	-1.0	1.3	0.0
15	컴퓨터	-4.7	2.3	-53.3	1.2	-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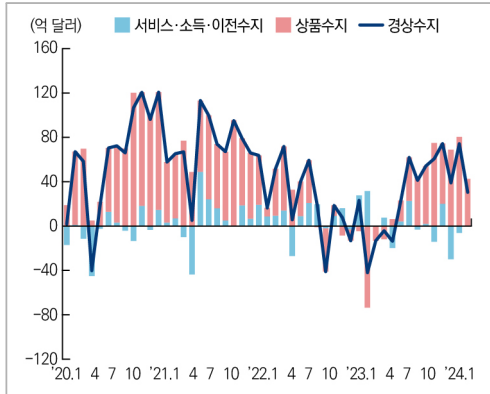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지역별	2022		2023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중국	-4.4	22.8	-19.9	19.7	-3.9
2	미국	14.5	16.1	5.4	18.3	1.0
3	아세안	14.8	18.3	-12.5	17.3	-2.2
4	EU(27)	7.0	10.0	0.3	10.8	0.0
5	베트남	7.5	8.9	-12.2	8.5	-1.0
6	일본	1.8	4.5	-5.1	4.6	-0.2
7	중남미	3.0	3.9	-7.4	3.9	-0.3
8	중동	12.3	2.6	7.3	3.0	0.2
9	인도	20.9	2.8	-4.8	2.8	-0.1
10	CIS	-17.8	1.6	13.2	2.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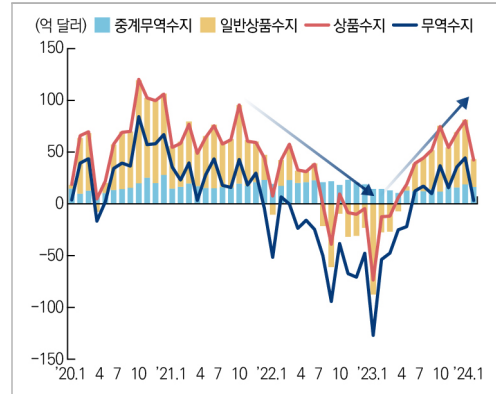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I-42 |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43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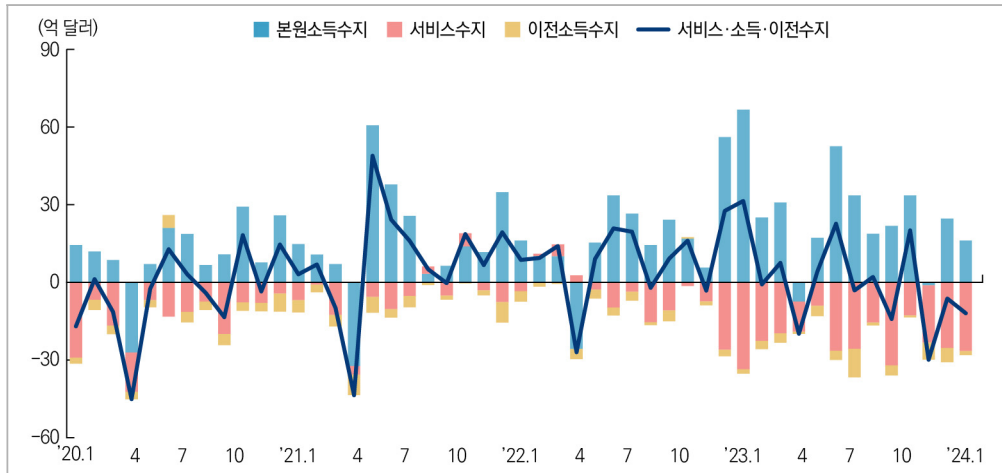
주: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상품수지 등은 국제수지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2023년 6월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최근에는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수출단가도 회복되고 있다. 수입은 단가 하락 폭이 줄었으나 내수부진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다.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상품수지와 함께 개선되었다. 상품수지는 2023년 4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며 하반기에는 매월 60억 달러 선에서 흑자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상품수지가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선 이후 그 폭이 커지고 있으며 중계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본원소득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데 힘입어 2023년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세계 개편의 영향으로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316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2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면서 운송수지가 소폭 적자로 돌아선 데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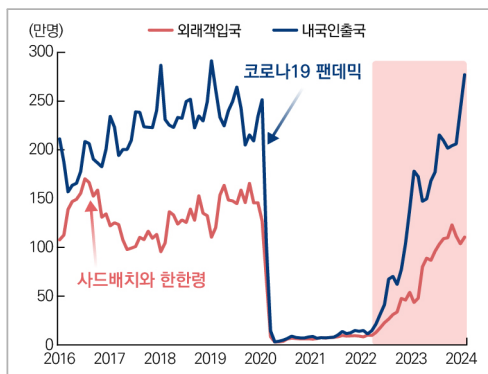
| 그림 I-44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수지는 2024년 상반기 중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해외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하반기 중 해외여행객 수는 월평균 213만명으로 예년 수준 233만명(2017~2019년 월평균)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효과(2023.8월)는 중국 여행객들의 여행 방식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¹³⁾ 운송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컨테이너 운임은 최근 소폭 상승하였다.

| 그림 I-45 | 출입국자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 그림 I-46 | 컨테이너 운임지수(BDI)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13) 2023년 하반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월평균 110만명으로 예년(128만명)의 86% 선까지 회복하였으나, 중국인 관광객 수는 24만명으로 예년(42만명)의 60% 선에 그쳤다. 중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최근 단체 패키지 관광 중심 '유커(游客)'에서 개별 여행 위주 '산커(散客)'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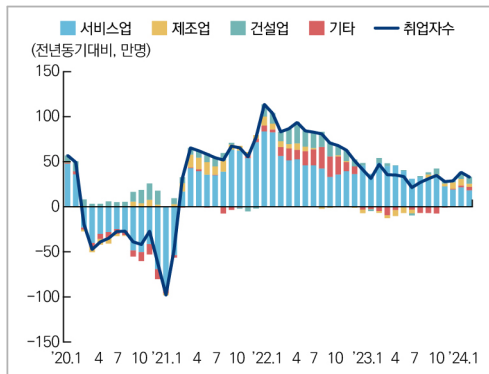
제3절 고용과 물가

- ▶ **고용**은 회복 흐름이 약화
-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하향 안정 움직임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하향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분기 40만 명 선이었으나 이후 조금씩 줄어 4분기에는 30만 명 선까지 낮아졌다. 다만 2024년 1~2월에는 취업자 수가 소폭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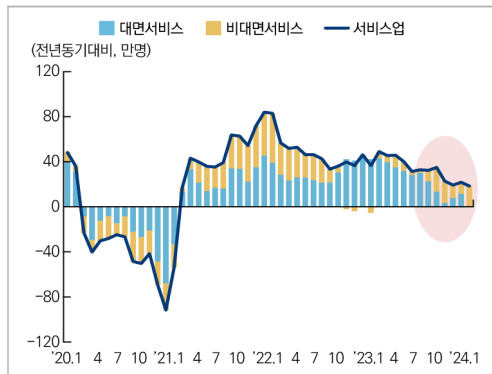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내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진 2023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 등 비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수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최근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 그림 I-47 |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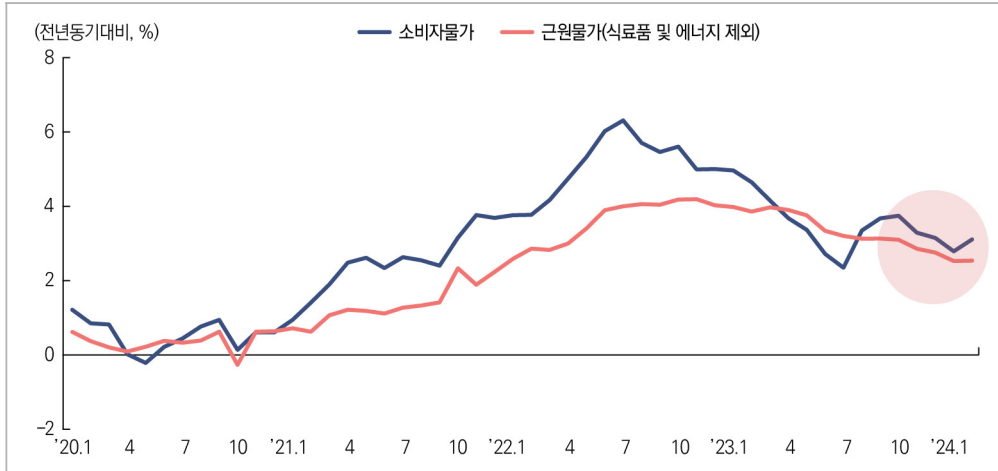
| 그림 I-48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오름세가 진정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7월 2.4%까지 낮아졌다가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0월에는 3.8%까지 높아졌다. 최근에는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가시면서 2024년 1월 2.8%까지 상승률이 떨어졌다. 다만, 2월에는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커진 데다 환율요인이 가세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높아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가 2월에는 상승률이 2.5%까지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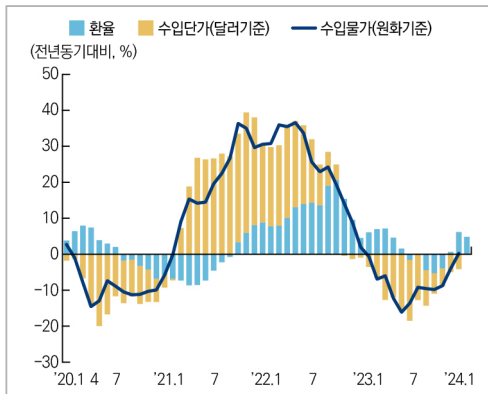
| 그림 I-49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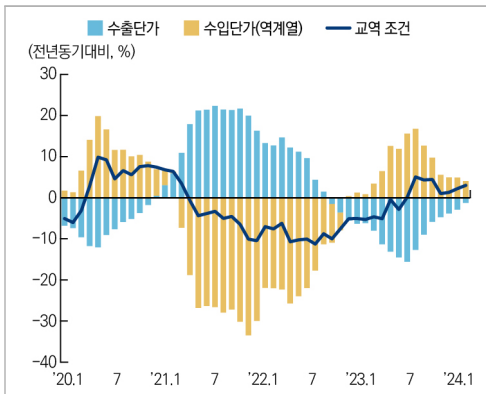
수입물가를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수입단가는 2023년 상반기 중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향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으나 낙폭은 줄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단가는 반도체 가격 회복과 함께 마이너스 폭이 빠르게 줄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 그림 I-50 |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I-51 |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제4절 정부 재정지출

- ▶ **정부 총세입**은 497.0조원으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 37.0조원 감소
- ▶ **정부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2023년 예산현액 대비 49.5조원 감소

정부는 2023회계연도 총수입 중 총세입을¹⁴⁾ 예산 대비 37조원 줄어든 497.0조원으로 마감하였다.¹⁵⁾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이 56.4조원 줄어든 탓이다. 2023년 총지출 중 총세출은¹⁶⁾ 490.4조원으로 마감하여 세출예산현액(540.0조원)에¹⁷⁾ 크게 못 미쳤다(49.5조원). 이에 따라 예산 불용이 45.7조원 발생하였다. 정부는 불용액 중 내부거래(16.4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방교부세(금)¹⁸⁾를 18.6조원 감액조정하고 예비비 등 기타 지출을 10.8조원 줄여 대응하였다.

표 I-3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단위: 조원)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이월 (C)	세계잉여금 (A-B-C)
497.0	490.4	6.5	3.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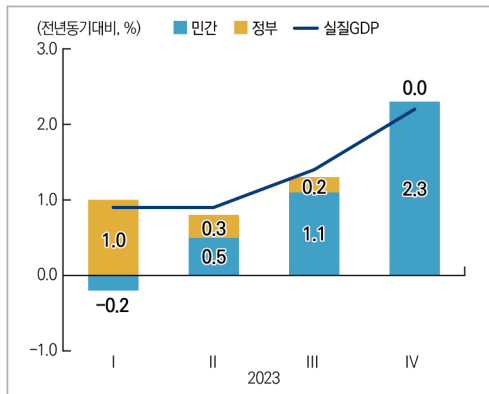
세입예산 (D)	예산현액 (E)	불용 (E-B-C)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예비비 미집행 등	내부거래
534.0	540.0	45.7	18.6	10.8	16.4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4.2.8일

- 14) 정부의 총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다(총계기준). 반면,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후 여기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의 수입규모이다(순계기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5월 31일까지).
- 15)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4.2.8일
- 16) 정부의 총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을 합한 금액(총계기준)으로, 여기에 기금지출까지 더한 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총지출과는 구분된다.
- 17)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등 추가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18)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나누어 주는 재원이다(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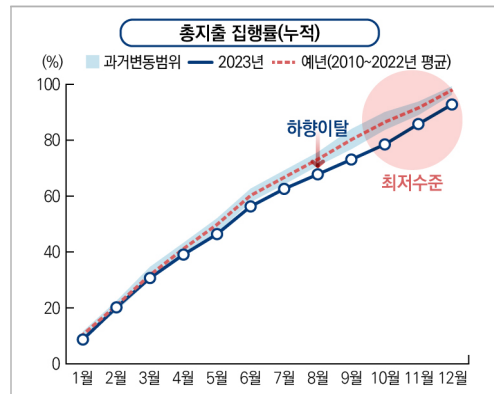
한편 2023년 하반기 정부부문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0.1%p로 상반기의 0.7%p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 연간으로는 0.3%p에 그쳤다. 이는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집행률(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의 비율)이 이례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지방교부세(금), 예비비 등이 감액되거나 일부 지출계획이 조정·변경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집행률은 세수부족 문제가 불거졌던 2023년 하반기 들어서며 예년평균(2010~2022년)을 밑돌기 시작하여 이후로 내내 과거 변동범위(2010~2022년) 밖에서 움직였다. 특히 경상지출의 하락 폭이 컸는데 이는 지방정부, 가계 등으로의 보조금 및 경상이전지출 집행률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던 까닭이다. 이는 GDP 통계의 일반정부를 구성하는 세 부문 중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2023년 세수 여건 악화에 더 많이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⁹⁾ 자본지출은 대체로 예년과 흐름이 비슷했다.²⁰⁾

| 그림 I-52 |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53 | 재정집행률 추이



주: 재정집행률 = 집행액/예산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한편 정부는 2024년에도 세수 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며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건설투자 등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2024회계연도의 총수입 예산은 612.2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5조원, 2.2% 감소하였다. 총지출 예산은 656.6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조원, 2.8% 증가에 그쳤다.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19) GDP 통계의 일반정부 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20) 자세한 내용은 "[BOX 3] 재정집행률로 살펴본 2023년 예산 불용"을 참조.

표 I-4 | 2024년 예산과 재정운용

(단위: 조원, %)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증감	
			(B-A)	(%)
총수입	625.7	612.2	-13.5	-2.2
총지출	638.7	656.6	17.9	2.8
관리재정수지	-58.2	-91.6	-33.4	-
통합재정수지	-13.1	-44.4	-31.3	-
국가채무	1,134.4	1,195.8	61.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4.1월

정부는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1.16일)을 세우고 민간수요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²¹⁾ 중앙재정을 약자복지, 일자리, SOC 세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상반기 65%, 350.4조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점 관리대상 사업에는 110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²²⁾

예년(2010~2022년) 상반기 중앙재정 총지출 집행률 실적치는 평균 60.3%, 최저 57.9%, 최고 62.7% 사이에서 움직였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목표는 과거의 변동범위를 상당 폭 웃돈다. 다만 보조금 및 경상이전지출(약자복지, 일자리 중점 부문) 항목과 SOC 자본지출의 평균 집행률은 각각 63.2%와 62.6%로 정부 목표치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2023년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도 올해와 같은 65%였으나 세입 여건 악화로 실적은 56.3%에 그쳤다.

21) 비상경제장관회의(관계부처합동),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1.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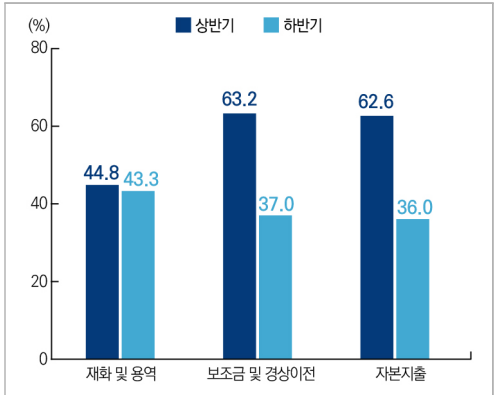
22)

[중점 관리대상 사업 및 목표 집행률]

관리대상 사업	약자복지	일자리	SOC
규모(조원)	70	14.9	24.2
상반기 목표 집행률(%)	65	67	65

| 표 I-5 | 정부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 그림 I-54 |** 지출 항목별 과거 집행패턴¹⁾
(단위: 조원, %)

	연간 계획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	집행률
합계	560.9	350.4	-
중양재정	251.2	163.3	65
지방재정	283.6	170.2	60
지방교육재정	26.1	17.0	65
SOC 사업	19.1	12.4	65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1.16일

주: 1) 2010~2022년 상하반기 집행률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신속집행 계획의 실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2024년 2월까지의 중양재정 집행률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지출항목별 집행액을 활용하여 추산했다. 확인 결과 2월까지의 총지출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1.8%p 높았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 사업들이 몰려있는 보조금 및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항목에서 집행률이 각각 7.2%p와 1.9%p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 I-6 | 2024년 2월 재정지출 항목별 집행률¹⁾

(단위: %)

	2024.2월(A)	예년 ²⁾ 2월(B)	차이(A-B,%p)
총지출	22.5	20.7	1.8
경상지출	22.8	22.8	0.0
재화 및 용역	15.2	14.5	0.7
보조금 및 경상이전	24.1	22.5	1.6
(보조금)	9.0	10.1	-1.1
(지방정부 등)	21.8	22.4	-0.6
(가계 및 비영리기구)	30.3	23.1	7.2
자본지출	19.4	17.5	1.9

주: 1) 재정집행률 = 집행액/예산액 (dBrain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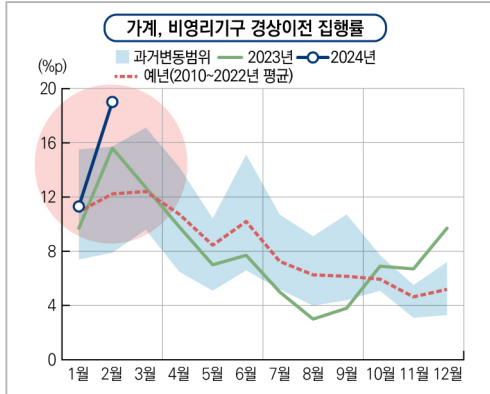
2) 2010~2022년 집행률(누계)의 각 월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마지막으로 이번 신속집행 계획의 집행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월간 재정 집행률(재정집행률 전월 차) 추이를 예년과 비교해 보았다. 2024년 2월의 월간 집행률은 가계 및 비영리기구에 대한 경상이전에서 가장 높았는데 2월 한 달에만 19.0%p 증가하며 과거 변동범위를 위쪽으로 벗어났다. SOC관련 자본지출은 과거 변동범위 안이었으나 역시 14%p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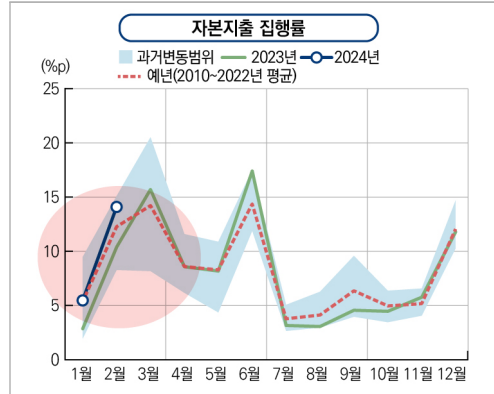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2024년 2월까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예상 못 한 세수 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목표 집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상반기 중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림 I-55 | 가계 등 경상이전 월간 집행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 그림 I-56 | 자본지출 월간 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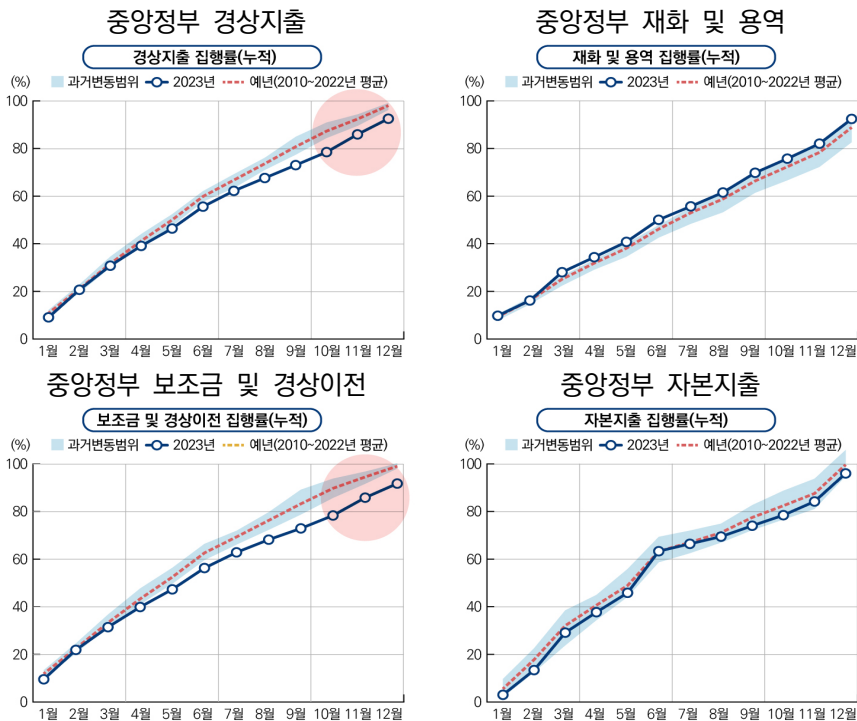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BOX 3] 재정집행률로 살펴본 2023년 예산 불용

2023년에 발생한 대규모 예산 불용(45.7조원)은 정부부문 GDP와 전체 GDP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²³⁾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세부 지출항목별 재정집행률에 나타난 예산 불용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경상지출 집행률은 2023년 6월부터, 하위 항목인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집행률은 2023년 5월부터 예년평균(2010~2022년)을 밀돌기 시작하여 이후 기간 내내 과거 변동범위 밖 아래쪽에서 움직였다. 반면 재화 및 용역 집행률은 경상지출 구성 항목임에도 예년 변동범위 상단을 따라 움직였다. 자본지출 집행률은 예년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2023년 예산 불용의 영향이 주로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집행률의 하락을 통해 지방정부 등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정집행률 |



주: dBrain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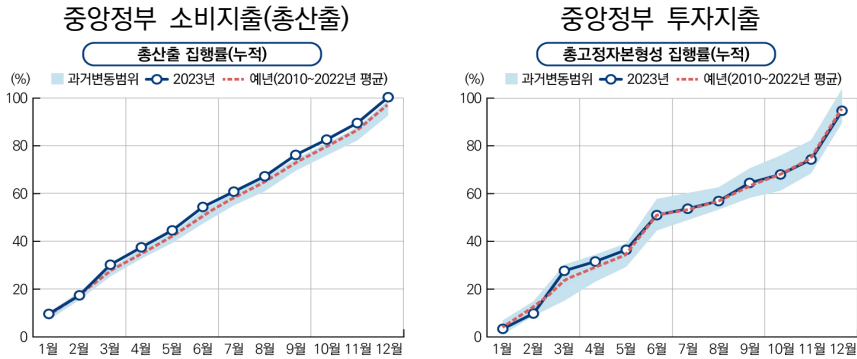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2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만을 집계하고 있어 이 자료만으로 지방 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집행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간접적이거나 예산 불용이 지방정부 등에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및 재정지출은 포괄범위 및 회계처리 방식에서 국민계정 상 정부부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의 결과는 단순히 정부 통합재정 집계방식과 국민계정 집계방식 간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국민계정 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다음 집행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자료를 정부부문 GDP 전망에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한 분석 체계를 이용하였다(「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 I」, 2023.10월, p.29). 아래 그림에서 보듯 중앙정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집행률에서는 2023년 세수 여건 악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중의 정부부문 GDP 성장기여도의 하락이 적어도 중앙정부 부문에서 나타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Ⅰ 중앙정부의 GDP 항목별 재정집행률 Ⅰ



주: dBrain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 GDP의 2023년 세부 내역과 지방정부의 2023년 결산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부문 GDP의 세부내역을 이용하면 지방정부의 소비 및 투자지출이 실제로 예산 불용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경상이전 감액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 한 해 지방정부 재정지출 중 어떤 항목이 경상이전 감액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정부부문 GDP의 세부내역을 담은 2023년 확정GDP 통계를 2024년 6월 5일에 공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결산결과는 오는 10월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지방재정365)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두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2023년 예산 불용의 경제적 영향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 보려 한다.

제5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반도체 수출 증가 및 생산 회복	○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
○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실질 소득여건 악화
	○ 재정지출 증가율 둔화

경제전망의 국내 경제 측면에서의 상방 요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 및 생산 회복과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실질 소득여건의 악화, 재정지출 증가율의 둔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편이며 이에 따라 생산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1월 중 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세우고 민간수요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으나, 2월에는 농산물 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오름세가 다시 커졌다. 최근의 내수 부진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있으며 통화,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지출 부문



전망

II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경제성장률

제3장 민간소비

제4장 정부소비 및 투자

제5장 건설투자

제6장 설비투자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제8장 대외거래

제9장 소비자물가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4년 실질GDP 성장률은 2.2%로 지난 전망(2023.10월)에 비해 0.2%p 상향 조정하였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의 내수 항목이 하향 조정되었다. 내수 부문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요인이었으나 대외 부문에서 총수입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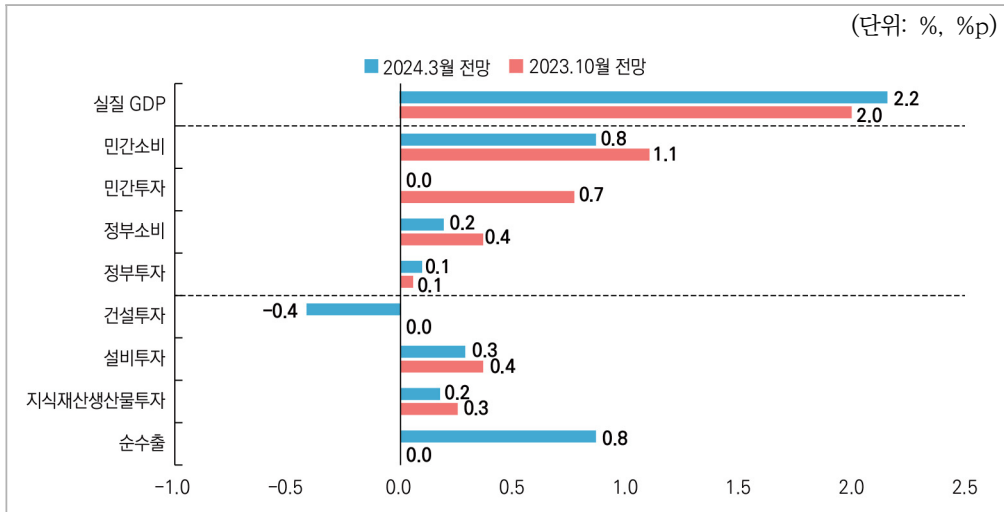
정부소비는 내수 부문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2024년 총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하여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총수입(세입+기금수입) 예산은 612.2조원으로 세입(-29.9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3.5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총지출 예산은 656.6조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여 2023년(5.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지출은 348.2조원(2.3% 증가)으로 2023년(340.3조원, 12.2%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²⁴⁾ 민간소비는 소비자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연되며 나타난 실질소득 여건의 악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누적된 가계의 이자 부담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2.2%)보다 0.5%p 하향 조정하였다.

건설투자는 건설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건설 비용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 등이 맞물려 발생한 건설업 부실 대출 구조조정 등의 하방 요인을 반영하여 0.2%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비용 상승 등의 하방 요인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4.5%) 대비 1.4%p 하향 조정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2023년 하반기 추세를 반영하여 4.4%에서 2.8%로 하향 조정하였다.

총수출은 둔화된 세계교역량신장률 회복속도를 반영하여 7.0%에서 5.8%로 하향 조정했으며, 총수입은 둔화된 내수상황을 반영하여 7.5%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24)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참조

| 그림 II-1 | 2024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표 II-1 | 2024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23.10월 전망(A)	24.3월 전망(B)	차이(B-A)
실질 국내총생산(GDP)	2.0	2.2	0.2
민간소비	2.2	1.7	-0.5
정부소비	2.2	1.2	-1.0
민간투자	2.6	0.1	-2.5
정부투자	1.0	1.6	0.6
건설투자	0.2	-2.5	-2.7
설비투자	4.5	3.1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2.8	-1.6
총수출	7.0	5.8	-1.2
총수입	7.5	3.9	-3.6
순수출(총수출-총수입)	-0.5	1.9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경제성장률

▶ 2024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

- 2023.10월 전망에 비하여 0.2%p 상향 조정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2.6	0.9	1.8	1.4	2.4	2.1	2.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 회복 ○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 ○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실질 소득여건 악화 ○ 지경학적 분열 가속화와 세계교역 위축

우리 경제는 2024년 2.2% 성장할 전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연중 경제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최근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는 점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 부진이 추가 확산되기 보다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다.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1%로 예상한다.

정부소비는 2023년(1.3%)과 비슷한 1.2%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정부세입이 내수부진, 세수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입예산 기준).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하여 2023년(2.5%)보다 증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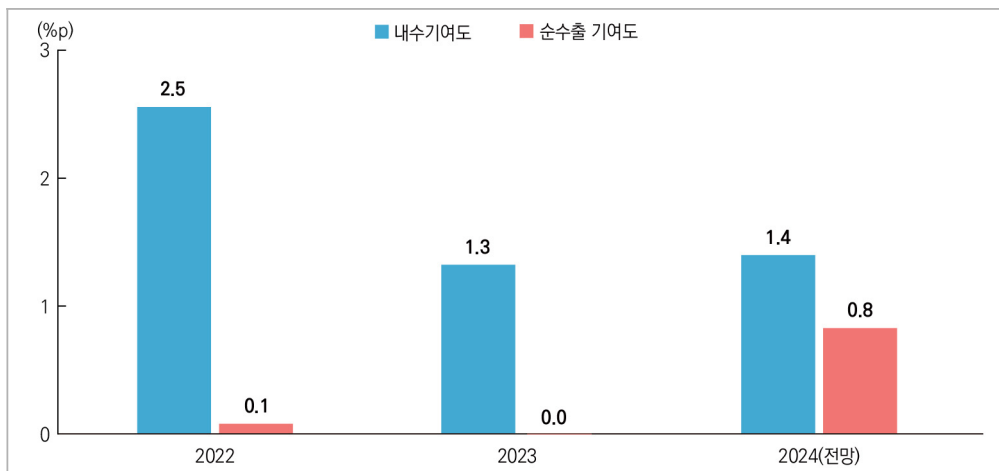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실질소득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투자는 건설투자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증가율이 0.1%에 정체될 예정이다. 투자 유형별로는 건설투자 -2.5%, 설비투자 3.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를 각각 전망한다.

총수출은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개선과 수출수요 회복에 힘입어 2024년 5.8%로 2023년(3.1%)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총수입은 내수 부진,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3.9%에 머무를 전망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2024년 1.4%p로 2023년 1.3%p와 비슷할 예정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8%p로 전년의 부진(0.0%p)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4년 5.0%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3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실질GDP 1.4% → 2.2%, GDP디플레이터 2.1% → 2.8%).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교역조건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빠른 개선 추이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국제가격 상승,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등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어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개선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2 |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II-2 | 2024 국내 경제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2.6	1.4	2.4	2.1	2.2
최종소비	4.1	1.7	1.2	1.9	1.6
민간소비	4.1	1.8	1.2	2.2	1.7
정부소비	4.0	1.3	1.2	1.3	1.2
총고정투자	-0.5	1.1	0.0	0.6	0.3
주체별					
민간투자	0.4	0.9	-0.3	0.4	0.1
정부투자	-5.1	2.5	1.5	1.6	1.6
유형별					
건설투자	-2.8	1.3	-2.4	-2.6	-2.5
설비투자	-0.9	0.5	2.1	4.1	3.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1.6	2.4	3.2	2.8
총수출	3.4	3.1	7.2	4.5	5.8
총수입	3.5	3.1	4.2	3.7	3.9
경상수지(억달러)	258	355	286	274	560
상품수출(통관)	6.1	-7.5	9.8	7.1	8.4
상품수입(통관)	18.9	-12.1	-2.7	10.2	3.5
GDP디플레이터	1.3	2.1	3.6	2.0	2.8
소비자물가	5.1	3.6	2.8	2.4	2.6
명목 국내총생산	3.9	3.4	6.1	4.1	5.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표 II-3 | 명목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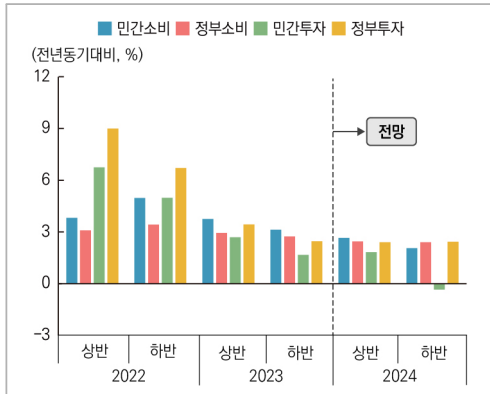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3.9	3.4	6.1	4.1	5.0
실질국내총생산	2.6	1.4	2.4	2.1	2.2
GDP디플레이터	1.3	2.1	3.6	2.0	2.8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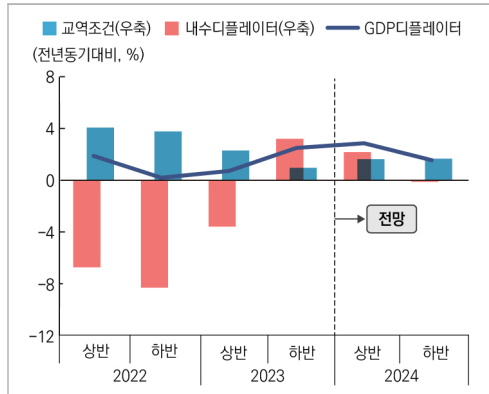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 회복, 고금리·고물가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종료 여부,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실질 소득여건 악화,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활동 위축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 그림 II-3 |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II-4 |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제3장 민간소비

▶ 2024년 민간소비는 1.7%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4.1	3.1	0.6	1.8	1.2	2.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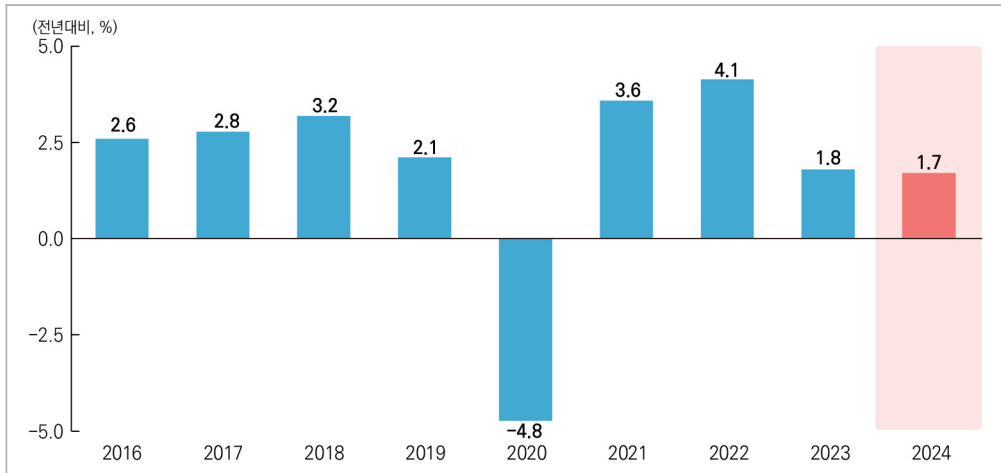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물가 상승세 둔화	○ 실질소득 제한적 증가
○ 소비심리 개선	○ 누적된 가계 신용위험
○ 원화가치 상승과 해외소비 확대	○ 자산가치 하락

2024년 민간소비는 작년(1.8%)보다 0.1%p 낮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가계의 소비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에 근접해가며 민간소비를 제약했던 하방 요인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상반기 민간소비의 주요 변동 요인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제한적 증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등이다. 하반기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환율 안정화에 따른 해외 소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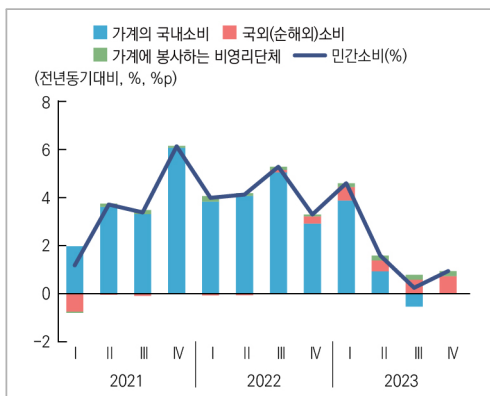
그림 II-5 | 민간소비 전망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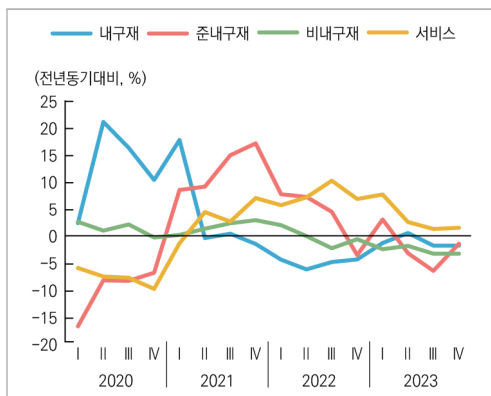
최근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방역조치 완화 이후로 회복세를 보였던 서비스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재화 형태별로 보면 비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내구재 소비 또한 감소로 전환하며 부진해졌다. 다만,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²⁵⁾

그림 II-6 | 민간소비 증감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7 | 재화형태별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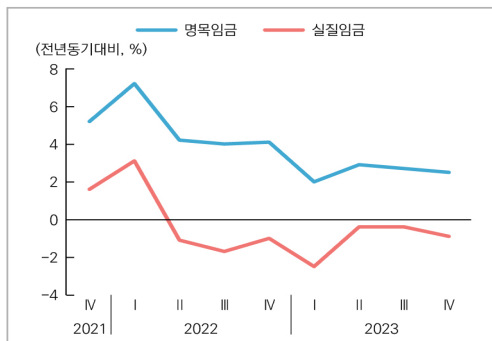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5) 거주자 국외소비는 민간소비인 동시에 해외 서비스 수입에 해당되어 GDP 전체로는 상계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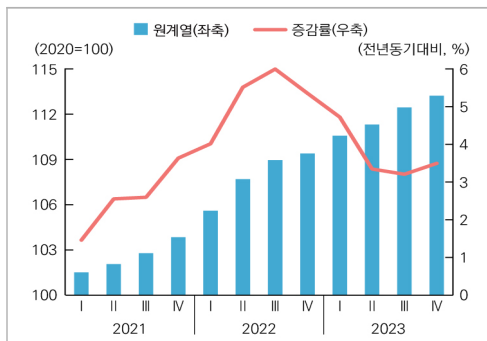
가계의 소비 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실질임금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통해 실질임금²⁶⁾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분기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2023년 4분기까지 감소 움직임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3분기 이후 낮아지고 있으나 그간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 그림 II-8 | 임금(명목, 실질)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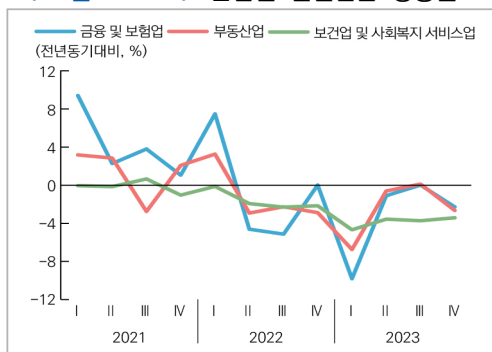
| 그림 II-9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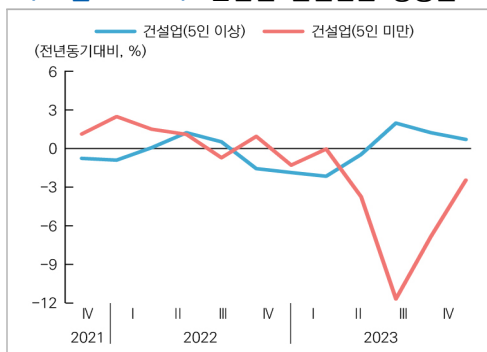
2023년 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실질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2.3%), 부동산업(-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등 숙박 및 음식업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업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 부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 그림 II-10 | 산업별 실질임금 상승률 I



자료: 고용노동부

| 그림 II-11 | 산업별 실질임금 상승률 II



자료: 고용노동부

26)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였다.

다음으로 누적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도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5.2%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4 |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이자비용과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

(단위: 만원, %)

	기간평균 ¹⁾	2022년	2023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자비용	8.4	10.2	11.2	11.8	11.5	11.8
	-	(22.5)	(36.6)	(37.9)	(20.4)	(16.0)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 ²⁾	4.1	4.6	4.7	5.3	5.1	5.2

주: 1) 2019년 1분기 ~ 2021년 1분기 중 평균 이자비용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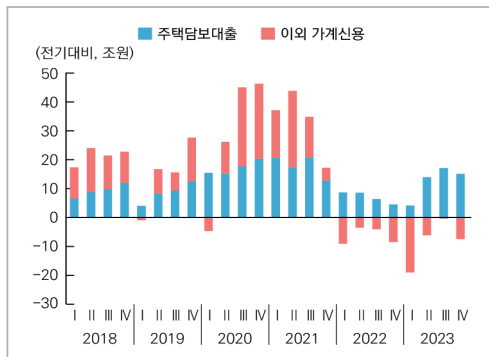
2) 이자비용을 지불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

3)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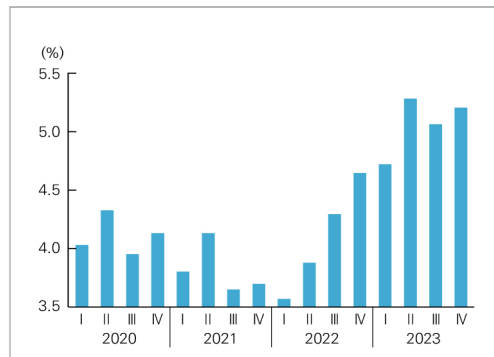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가계신용²⁷⁾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축소(디레버리징)가 불가피하나,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현금서비스, 자동차 할부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은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가 오르면서 일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비용은 지속 상승하여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그림 II-12 | 가계 신용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3 |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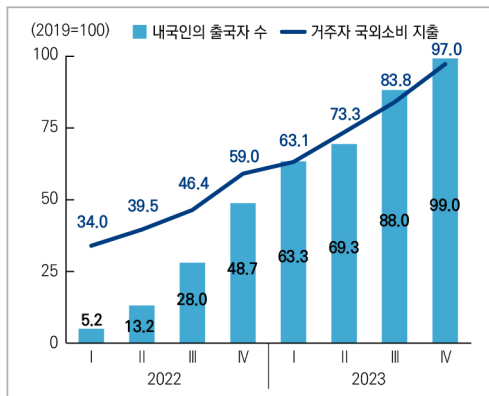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27)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해외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거주자 국외소비가 민간소비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²⁸⁾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 4분기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와 함께 거주자의 국외소비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만일 시장의 예상대로 2024년 하반기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원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에는 해외관광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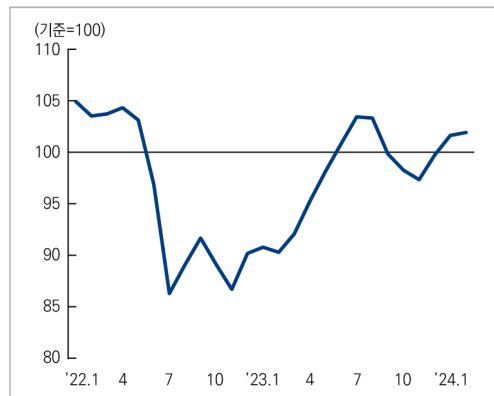
또한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더욱 완만해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근접할 전망이다.²⁹⁾ 이러한 실질소득 여건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도 101.9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³⁰⁾

| 그림 II-14 | 내국인 출국자 수 및 거주자 국외소비 회복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 그림 II-15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28) 내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민간소비 중 거주자 국외소비지출로 집계된다.

29)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소비자물가 부분의 내용을 참고(78페이지)

30)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년~전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BOX 4] 고금리와 민간소비

금리 상승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준다. 먼저, 고금리는 가계신용을 위축시켜 가계의 내구재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를 구매할 때 가계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할부 금융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금융 상품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³¹⁾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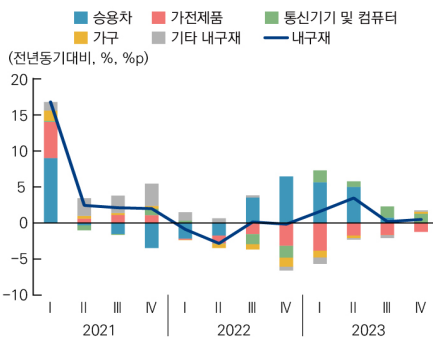
(단위: 조원)

	내구재				주택	기계류	기타	합계
	자동차	가전	기타					
2019	21.1	0.02	0.34	21.5	0.19	0.25	0.43	22.3
2020	22.1	0.03	0.31	22.4	0.10	0.24	0.57	23.3
2021	20.9	0.02	0.02	21.1	-	0.31	0.35	21.8
2022	23.0	0.02	0.21	23.2	-	0.38	0.38	24.0

자료: 여신금융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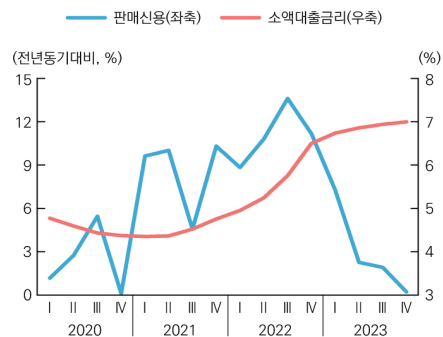
최근의 내구재 소매판매액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는 고금리가 이어지며 할부금융 비용도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3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왼쪽 아래). 이와 맞물려 판매신용도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오른쪽 아래).

내구재 항목별 증감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판매신용 증감률과 소액대출금리 추이



주: 소액대출금리는 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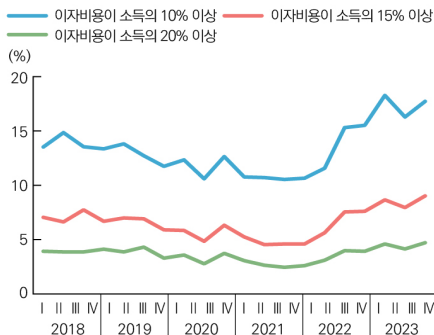
31) 2022년 연간 승용차 소매판매액(경상) 대비 할부금융 취급실적 비중은 37.2%였다.

다음으로, 빚을 안고 있는 가계에게 금리 상승은 곧바로 이자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를 줄여 부채를 줄여나가거나, 곧바로 부채조정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늘어난 이자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게 된다. 최근 상황을 보면 현금서비스, 자동차 할부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신용은 줄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2023년 4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17.7%에서 이자비용이 소득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7.2%p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실질소득의 증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자비용의 증가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보다는 낮은 가구의 소비를 더 크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구 중에서 빚을 안고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2021년과 2022년 사이 소비 증가율의 하락 폭이 더 컸다(1분위 1.7%p 감소, 2분위 0.2%p 감소). 같은 기간 중 금리 상승 폭은 1.65%p였다.

이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 저소득 가구, 그중에서도 부채 및 이자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상당 기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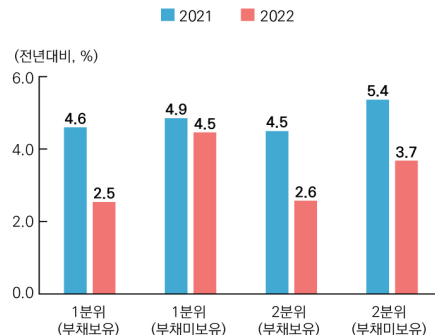
Ⅰ 과다 이자부담 가구 비중 Ⅰ



주: 이자비용이 발생한 가구 대비 비중
(단, 소득이 없는 가구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Ⅰ 가구 특성별 소비 증감률 Ⅰ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제4장 정부소비 및 투자

▶ 2024년 정부소비 및 투자는 각각 1.2%, 1.6%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정부소비	4.0	2.5	0.0	1.3	1.2	1.3	1.2
정부투자	-5.1	2.7	2.4	2.5	1.5	1.6	1.6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소비 및 투자 디플레이터 오름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입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지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2024년 정부지출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³²⁾하면 재정수입 여건 악화와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2023년에 이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1.2%, 1.6% 늘어 정부소비는 전년에 이어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정부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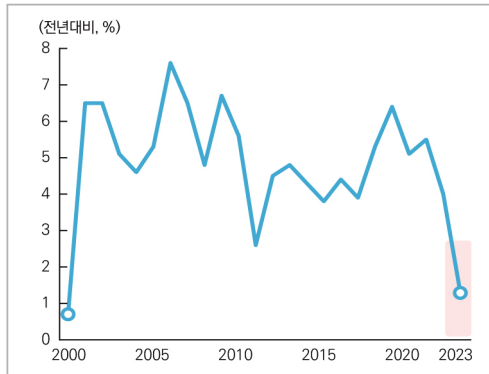
32) 정부소비는 2015~2019년 중 연평균 4.8%, 정부투자는 5.6% 증가하였다. 2020~2022년 중에는 정부소비는 연평균 4.9% 증가하였으나, 정부투자는 2.2% 감소하였다.

제1절 정부소비

2024년 정부소비는 재정수입 여건 악화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재정 건전화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1.3%)에 이어 낮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 증가,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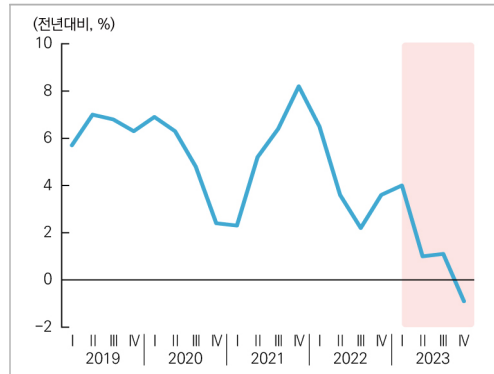
정부소비는 코로나19 이전 5년 기간(2015~2019년) 중에는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2020~2022년 중에는 연평균 4.9%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0년 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 그림 II-16 | 연별 실질정부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17 | 분기별 실질정부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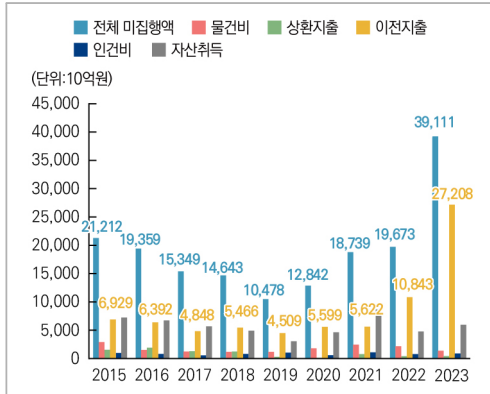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3년 예산 미집행액의 증가는 정부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2023년도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기준³³⁾ 39.1조원(이월액 4.0조원, 불용액 35.2조원)으로 미집행률은 6.0%였다. 이는 지난 2015년 21.2조원(미집행률 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출³⁴⁾의 미집행액은 21.4조원(미집행률 9.5%)이었다. 또한 통합재정 상 경상지출 집행률은 92.6%(자체 계산)로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97.5%, 97.6%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았다.

33)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최종소비지출로 총산출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그 중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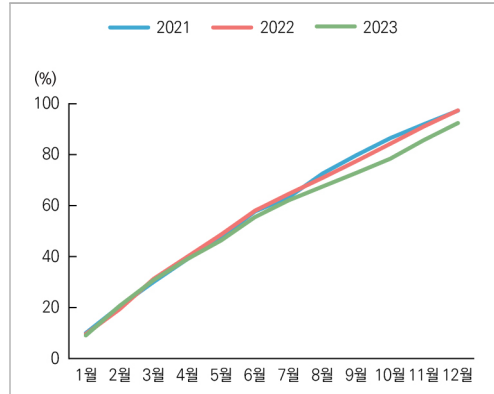
34)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5%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그림 II-18 | 성질별 미집행액 추이



주: 총지출 예산현액 기준
자료: 열린재정 DB

그림 II-19 | 통합재정 상 경상지출 집행률



주: dBrain을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2024년 국민계정 상 실질정부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정부 재정지출³⁵⁾, 건강보험 급여비, 무상교육 등의 사회보장현물수혜금 지출, 정부소비디플레이터 등이다.

2024년 정부의 총지출은 재정수입 여건 악화와 재정 건전화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년 총수입(세입+기금수입)은 612.2조원으로 세입(-29.9조원)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5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9%로 2023년 -0.6%에 비해 적자규모가 GDP 대비 1.3%p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 중앙정부 확정예산 상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23년(5.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³⁶⁾은 348.2조원(전년대비 2.3% 증가)으로 2023년(340.3조원, 전년대비 12.2%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며 관련 정부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35) 국민계정 상 일반정부의 정부소비지출 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상의 경상지출이다. 통합재정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용역비가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계정 정부소비와 통합재정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포괄범위와 부문별 지출 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기별로 안정적인 관계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된 논의는 박명호·오종현(2017),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I” 등을 참조.

36) 의무지출 중 정부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복지 분야의 영유아보육료, 자녀양육비, 지방이전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이다.

표 II-5 | 2024년도 총수입·총지출 예산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확정예산(B)	전년대비 (B-A)
총수입	625.7	612.2	-13.5
- 예산(세입)	425.4	395.5	-29.9
- 기금(수입)	200.3	216.7	16.4
총지출	638.7	656.6	17.9
- 예산(세출)	441.1	438.3	-2.8
- 기금(지출)	197.7	218.4	20.7

주: 총수입·총지출 = 총계 - 외국환평형기금 및 8대 금융성기금 -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2024.1월)

표 II-6 | 2024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확정예산(B)	전년대비 (B-A)
통합재정수지	-13.1	-44.4	-31.3
(GDP 대비)	(-0.6)	(-1.9)	(-1.3)
관리재정수지	-58.2	-91.6	-33.4
(GDP 대비)	(-2.6)	(-3.9)	(-1.3)
국가채무(D1)	1,134.4	1,195.8	61.4
(GDP 대비)	(50.4)	(51.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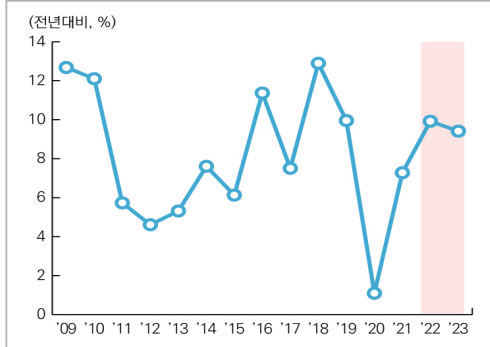
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2024.1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³⁷⁾은 코로나19 이전 증가 추세로 회복되며 정부소비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정부가 가계에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무상급식 등과 함께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76.7조원)가 명목정부소비(377.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년대비 각각 2.9%, 7.9% 증가하여, 이전 기간(2009~2019년)의 평균 증가율 9.1%를 크게 밑돌았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는 청구 건수와 건당 급여비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구 건수는 2022년 빠르게 회복되며 13.9%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분기 까지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건당 급여비는 동기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7)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지만,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국고지원금(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과 국가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의 의무지출 항목이며, 국민계정 상에서는 일반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정부소비에 계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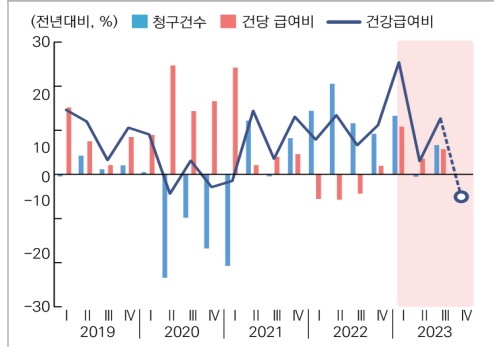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³⁸⁾도 2022년 들어 10.0%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그림 II-20| 건강보험 급여비 연별 지출 증가율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림 II-21| 건강보험 급여비 분기별 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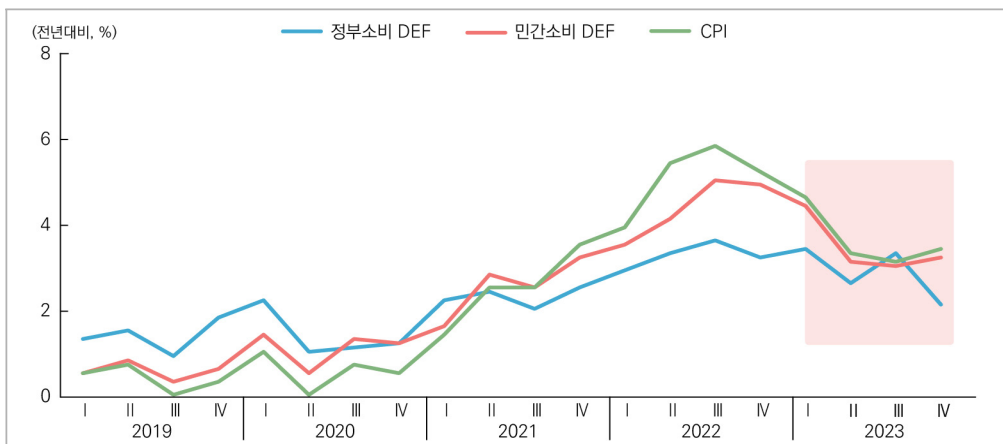


주: 2024년 4분기 증가율은 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명목정부소비지출을 실질화하는 가격변수로 2023년 2.8%(상반기 3.0%, 하반기 2.7%)에서 2024년 2.4%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이 2023년 4.2%에서 2024년 3.7%로 낮아지는 가운데 실질정부소비 증가세 둔화를 완화하는 요인이다. 2023년 4분기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2.1%로 빠르게 안정되며 동기간 명목정부소비의 증가세가 1.2%로 가파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실질정부소비 감소 폭을 완화하는 요인이었다.

|그림 II-22| 정부소비디플레이터의 분기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액 기준

제2절 정부투자

2024년 정부투자는 SOC 투자, 국방, 생활 안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6% 늘어 2023년(2.5%)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투자의 결정 요인은 정부의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 규모, SOC 분야 예산, 명목정부투자를 실질화하는 정부투자디플레이터 등이다. 정부의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 규모는 재량지출 규모의 변동과 연관성이 높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근거에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2024년 재량지출 규모는 308.7조원으로 전년(2023년 298.4조원) 대비 3.5%(10.3조원) 증가한다. 정부의 재량지출 방향은 4대 분야 중점투자³⁹⁾, 민생경제 회복지원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이다.

표 II-7 | 2023~202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638.7 (5.1)	656.9 (2.8)	684.4 (4.2)	711.1 (3.9)	736.9 (3.6)	3.6
-의무지출 (비중)	340.3 (53.3)	348.2 (53.0)	373.3 (54.5)	394.0 (55.4)	413.5 (56.1)	5.0
-재량지출 (비중)	298.4 (46.7)	308.7 (47.0)	311.1 (45.5)	317.1 (44.6)	323.4 (43.9)	2.0

주: 202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3.8.

2024년 중앙정부의 분야별 확정예산을 보면 SOC(1.4조원), 환경(0.3조원), 국방(2.4조원), 공공질서·안전(1.5조원) 분야 등에서 정부투자 관련 예산의 증가는 정부의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 요인이다. 반면 R&D 분야는 전년대비 4.6조원(14.7%) 줄며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감소 요인이 될 전망이다.⁴⁰⁾

39) 4대 중점투자 분야는 ①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의 복지(사회안전망) ②성장동력 확보 ③경제활력 제고 ④국방, 공공안전망 등 국가기능 수행 강화이다.

40) 정부투자를 자본재 형태별로 보면 2022년 명목정부투자(106.0조원) 중 건설투자 64.3% (68.1조원), 설비투자 21.3%(22.5조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4.4%(15.3조원) 비중이다.

표 II-8 | 2024년 분야별 중앙정부 예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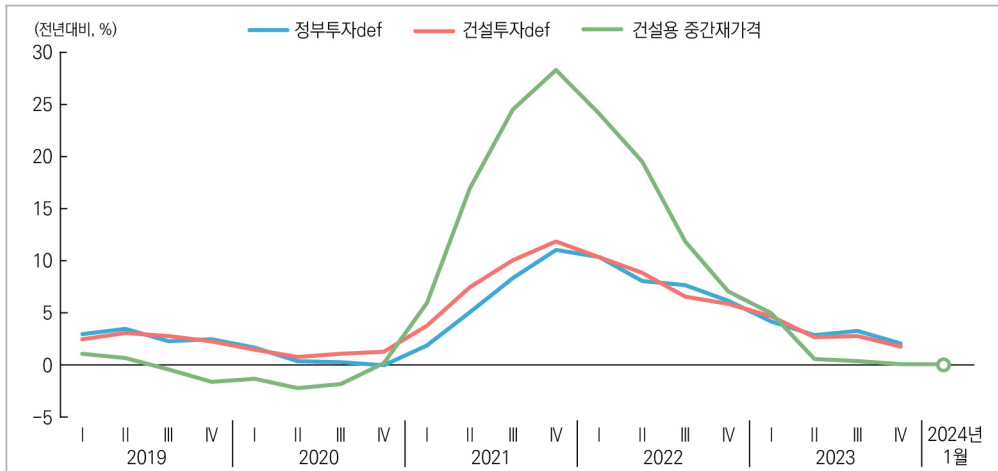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확정예산(B)	전년대비 (B-A)
총지출	638.7	656.6	17.9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교육	96.3	89.8	-6.5
문화·체육·관광	8.6	8.7	0.1
환경	12.2	12.5	0.3
R&D	31.1	26.5	-4.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8.0	2.0
SOC	25.0	26.4	1.4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국 방	57.0	59.4	2.4
외교·통일	6.4	7.5	1.1
공공질서·안전	22.9	24.4	1.5
일반·지방행정	112.2	110.5	-1.7

주: 12대 분야 중 R&D 분야와 타 분야의 R&D 예산이 중복으로 계상되며,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이 아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 총계로 산출됨에 따라 12대 분야의 단순합계와 총지출의 수치가 상이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2024.1월)

정부투자디플레이터는 SOC 관련 투자 비중이 높아 건설투자디플레이터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건설용 중간재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 향후 실질 정부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23 |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증감률 추이



주: 건설용 중간재 가격은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건설용 중간재 가격지수의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제5장 건설투자

▶ 2024년 건설투자는 2.5%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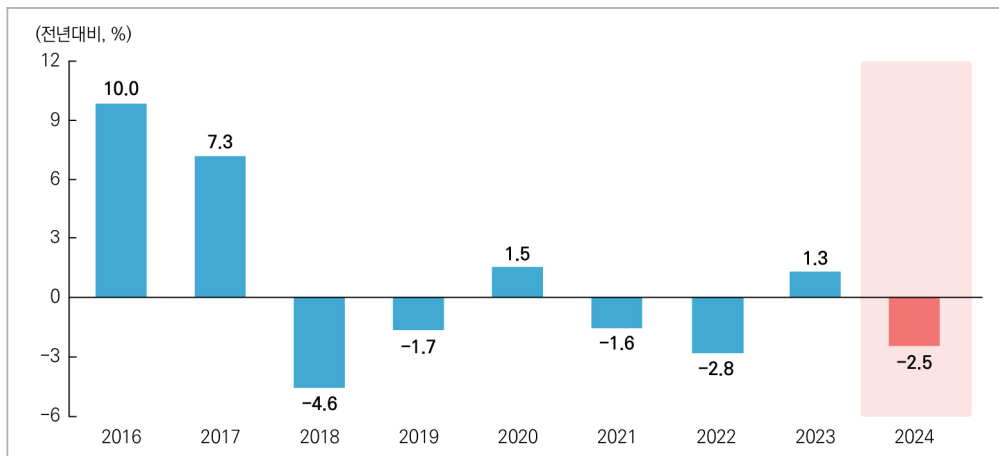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2.8	1.8	0.8	1.3	-2.4	-2.6	-2.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상반기 SOC 예산 조기 집행	○ 건설 관련 선행지표 부진
○ 자금조달 여건 개선 가능성	○ 건설업 부실 대출 구조조정
	○ 건설 중간재 가격의 높은 수준 지속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 건설 중간재 가격의 높은 수준, 건설업 부실 대출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주요 하방 요인이다. 다만, 상반기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은 상방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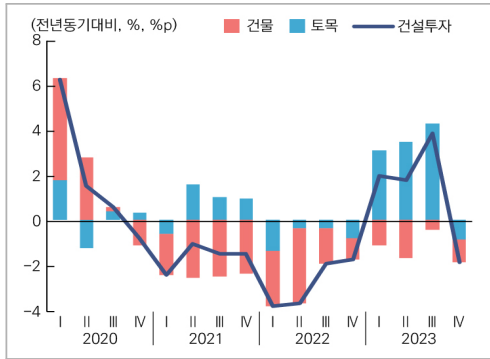
| 그림 II-24 | 건설투자 전망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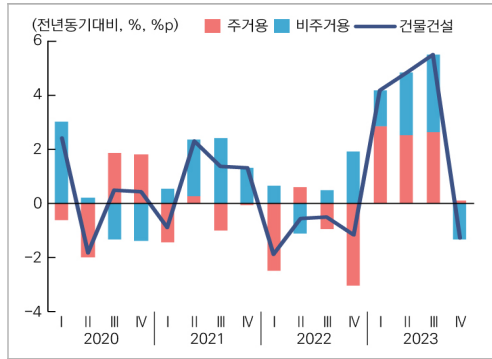
최근 건설투자는 그동안의 선행지표 부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수주의 부진과 건축 인허가 증감률 감소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에 1.6% 감소하였다. 토목건설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건물건설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에서 모두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 그림 II-25 | 건설투자 증감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II-26 | 용도별 건물건설 증감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발주자별 건설기성액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2023년 중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⁴¹⁾ 하지만 예정된 공사가 마무리되며⁴²⁾ 2023년 4분기부터는 민간부문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공공부문은 부진이 지속되었다. 건설기성액 중 민간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⁴³⁾을 고려할 때 앞으로 건설투자가 한동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표 II-9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민간	5.7	10.0	15.0	12.2	11.4	3.0
공공	-6.1	-2.4	-0.8	-3.2	5.1	-8.0
계	2.8	7.4	11.5	8.7	10.1	0.9

주: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건설기성 디스플레이터(건설기성 경상금액 / 건설기성 불변금액)를 이용하여 실질화함.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41) 건설기성액(불변기준)은 2023년 7.4% 증가하였는데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여도는 각각 7.9%p, -0.5%p였다.

42) 2023년 11월 중 대단지 아파트 입주(전국 56개 단지, 3만 9,260가구)가 완료되었다.

43) 2023년 연간 건설기성액(경상) 중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1%, 16.9%이며 이외 민자 및 국내외기관이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⁴⁴⁾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업황 실적과 전망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⁴⁵⁾ 이러한 움직임에 비추어 향후 건설경기 부진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표 II-10 |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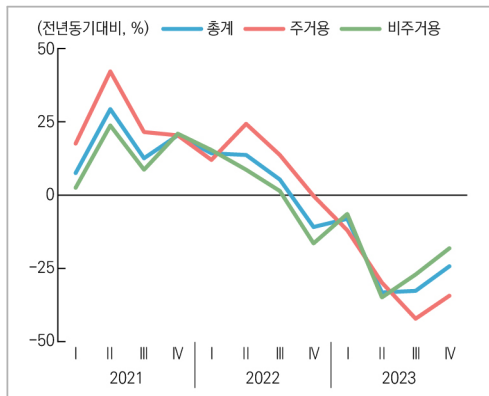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설수주	건축	8.7	-30.3	-24.8	-43.5	-50.0	8.3
	토목	14.6	22.7	31.1	17.9	-24.2	58.6
	계	10.0	-18.5	-12.7	-31.4	-44.8	22.9
건축허가		4.8	-25.6	-8.5	-33.5	-32.8	-24.3
건축착공		-18.1	-31.7	-28.7	-46.5	-44.2	1.2

주: 건설수주는 경상 금액 기준이고 건축허가 및 착공은 면적(m²)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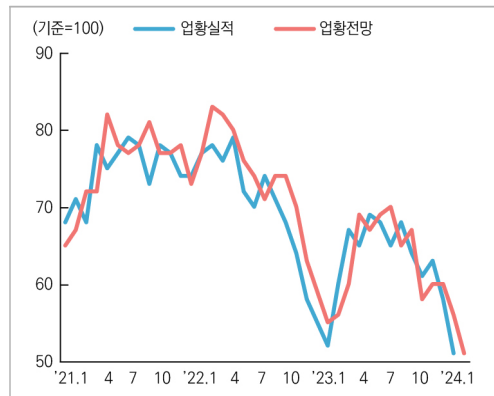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그림 II-27 |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28 |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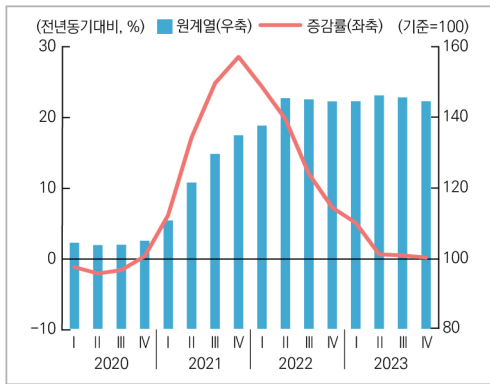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4) 2023년 4분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말 요인의 일시적 영향으로, 2024년 1월 건설수주(경상)는 다시 10.4% 감소로 돌아섰다.

45) 2024년 2월 건설업 업황실적과 3월 전망은 모두 51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기평균(실적은 65, 전망은 66, 200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평균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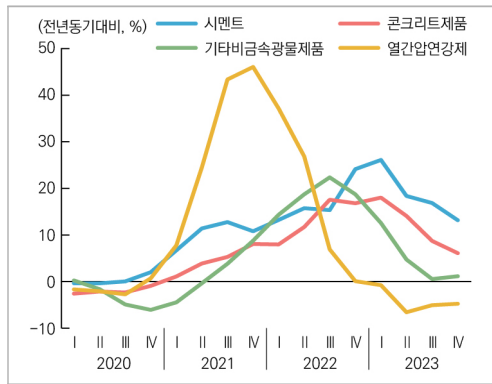
높은 건설비 역시 건설투자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예정이다. 건설용 중간재 가격이⁴⁶⁾ 2020년 이후 크게 올랐으며, 건설업 일평균 임금 역시 건설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는 2024년 상반기(2023년 9월 조사 기준) 건설업 전체의 일평균 임금이 6.0% 상승(전년대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용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건설용 중간재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멈췄다. 그러나 최근 탄소 중립 관련 설비투자가 늘면서⁴⁷⁾ 관련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비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그림 II-29 | 건설용 중간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30 |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표 II-11 | 건설업 일평균 임금 현황¹⁾

(단위: 원, 전년동기대비, %)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²⁾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242,931 (5.3)	248,819 (5.5)	255,426 (5.1)	265,516 (6.7)	270,789 (6.0)

주: 1) 일평균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노임을 의미함

2) 각 년도 상반기, 하반기 조사 시점은 각각 전년도 9월, 당년도 5월임

3)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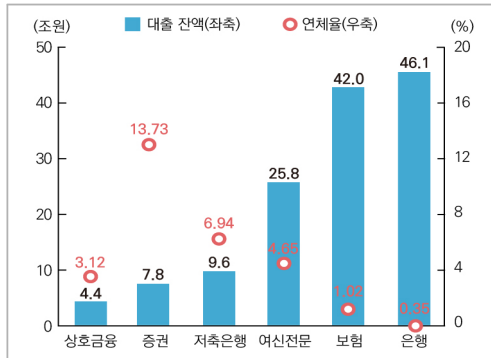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46) 2023년 4분기 건설용 중간재 국내공급물가지수는 2020년 4분기 104.9 대비 37.8% 상승한 144.5를 기록하였다.

47) 시멘트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설비의 신증설 및 개조 등을 위하여 향후 3~4년간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도 건설투자의 잠재적 하방 요인이다.⁴⁸⁾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업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 및 보험의 연체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22년말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그림 II-31 |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 표 II-12 |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

(단위: %)

	'21년말	'22년말	'23년 9월	'23년 12월
증권	3.7	10.4	13.9	13.7
보험	0.1	0.6	1.1	1.0
여신전문	0.5	2.2	4.4	4.7
상호금융	0.1	0.1	4.2	3.1

자료: 금융위원회

마지막으로 2024년 중 정부의 SOC 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은 건설투자 부진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⁴⁹⁾ 2024년 정부의 SOC 예산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0.8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GTX 건설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토목건설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⁵⁰⁾

| 표 II-13 | SOC 예산 현황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2024년 상반기 중 목표 집행률
도로	11.1	-5.9	1.7	67.5
철도	5.9	-11.4	6.7	63.9
총계	6.5	-10.6	5.3	65.0

주: 인건비 등 균등집행이 필요하거나 이차보전금 등 경제활성화와 관계 없는 일부 비목(약 1.7조원)을 제외한 한 예산으로 한정하여 목표액을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48) 자세한 내용은 NABO 경제 동향 2024년 2월호 경제 현안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을 참고

49) 본문의 정부 SOC 예산은 건설투자와 밀접한 국토교통부 예산만을 한정한다.

50) 2023년 연간 잠정 건설투자(실질) 중 토목건설은 약 25.2%를 차지하고 건물건설은 약 74.7%를 차지한다.

제6장 설비투자

▶ 2024년 설비투자는 3.1%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0.9	5.3	-3.9	0.5	2.1	4.1	3.1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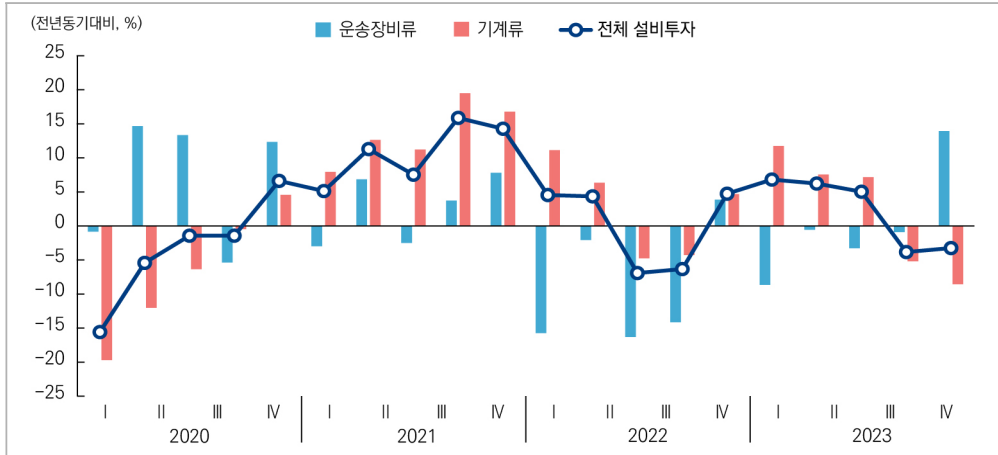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경기 회복에 따른 선제적 투자 수요 ○ 주력업종 수출 호조 ○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 국내 경기둔화 ○ 투자비용 상승

2024년 중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의 상방요인으로는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른 선제적 투자 수요, 주력업종의 수출 호조,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국내 경기 둔화, 투자비용 상승 등은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중 설비투자는 상반기 기계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5.3%)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감소 전환(-3.9%)하며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도 기저효과(상반기-7.0%)를 들 수 있다. 반면 2023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가 감소 전환된 것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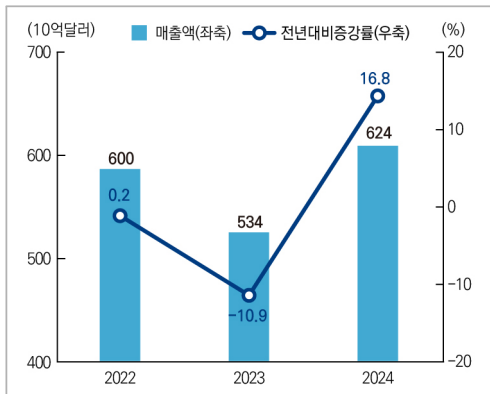
| 그림 II-32 |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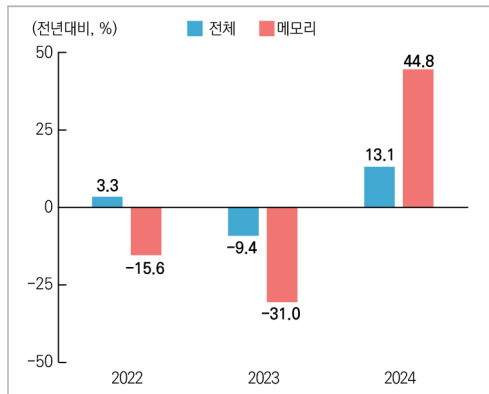
2024년 설비투자 전망의 상방요인으로는 먼저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른 선제적 투자 수요를 들 수 있다. Gartner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한 6,2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통계기구(WSTS)에서도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메모리 시장의 성장률을 각각 전년대비 13.1%, 44.8%로 전망하였다. 또한 글로벌 IT경기 회복과 함께 글로벌 제조업 PMI도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⁵¹⁾ 국내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 그림 II-33 |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자료: Gartner(2023.12.)

| 그림 II-34 |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WSTS(2023.11.)

51) 글로벌 제조업 PMI 추이: ('23.10월)48.8→(11월)49.3→(12월)49.0→('24.1월)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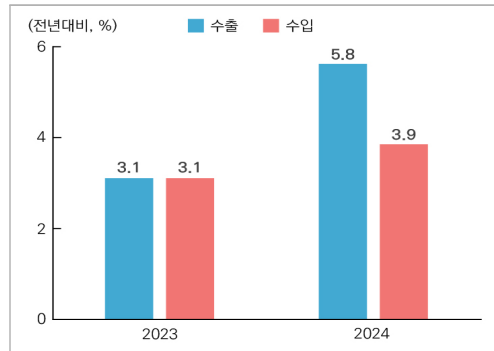
최근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또한 설비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은 2023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내내 호조를 보였던 자동차 수출 또한 2024년 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⁵²⁾.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선박 등 수출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관련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총수출 증가율이 5.8%로 지난해(3.1%)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그림 II-35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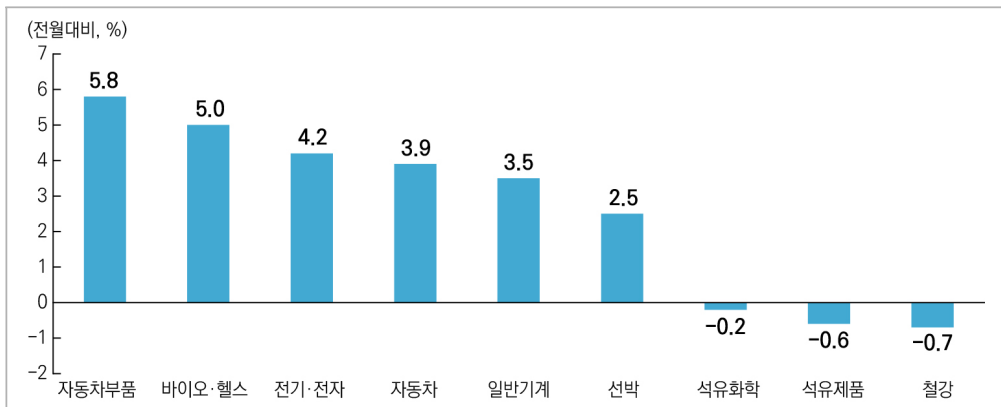
주: 통관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그림 II-36 | 2024년 수출입 전망



주: 국민계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2023년 실적),
국회예산정책처(2024년 전망)

| 그림 II-37 | 2024년 업종별 수출 증감률 전망



자료: 한국경제인협회(2024.2.)

52) 자동차 수출액(전년동월대비,%): ('23.11월)21.5→(12월)17.8→('24.1월)24.7

마지막으로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연장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High5+(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첨단산업에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047년까지 팹리스, 메모리·파운드리, 소부장, 연구거점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표 II-14 | 2024년 설비투자 관련 정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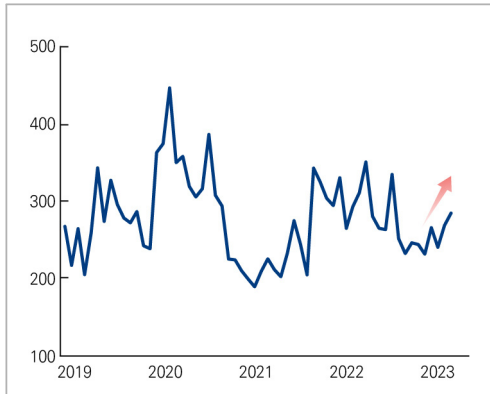
구분	설명
세제지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24.12월)
금융지원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특별지원 -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특별지원 -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첨단산업 집중 육성	High5+(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α 규모 정책금융 공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팹리스(판교), 메모리·파운드리(화성, 용인, 이천, 평택), 소부장(안성), 연구거점(기흥, 수원)으로 구성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해 팹 16기 신설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및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은 2024년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EPU 지수⁵³⁾가 2023년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를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불확실한 경기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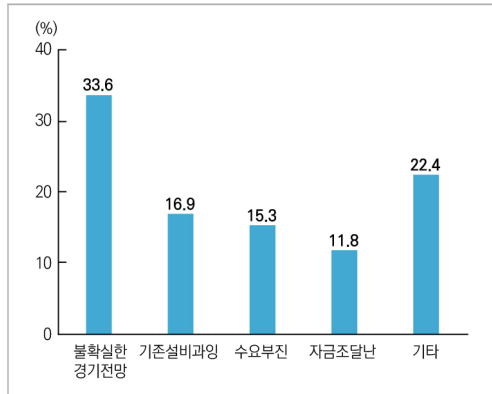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들 수 있다. 실질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설비투자 수요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I-38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2024.1.)

| 그림 II-39 | 설비투자 부진 요인



자료: 「설비투자계획조사(2023.12.)」, 산업은행

53)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제7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2.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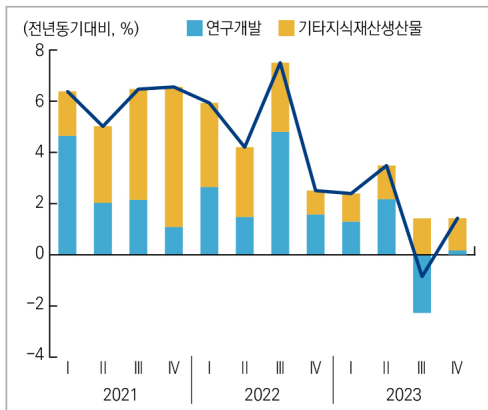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5.0	2.9	0.3	1.6	2.4	3.2	2.8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신성장부문 투자 확대	○ 투자비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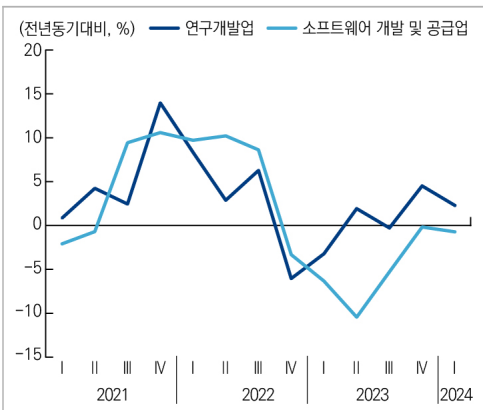
2024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대비 2.8% 성장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여건개선과 함께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1.6%)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4%, 하반기 3.2% 성장할 예정이다.

| 그림 II-4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유형별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II-4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서비스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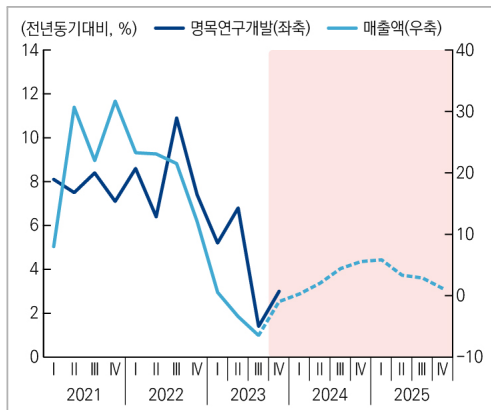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지식 재산생산물투자 중 연구개발투자가 다소 부진했다.⁵⁴⁾ 다만, 최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도 회복되고 있고 IT 및 주요 제조업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 여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연구 관련 인력과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등 신성장 부문에 대한 수요 확대로 관련 기술투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 금융, 의료,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⁵⁵⁾ 관련 분야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I-42】 GDP 연구개발 및 기업매출액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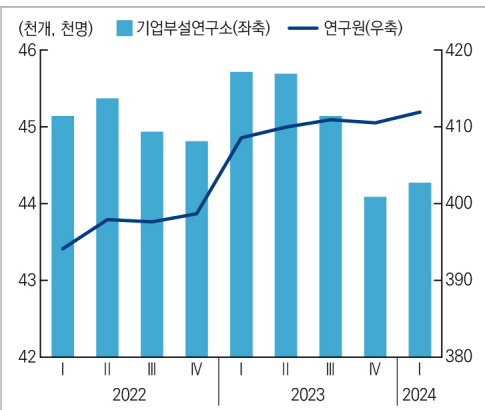


주: 1) 코스피에 상장되었으며, 최근 연구개발비가 있는 기업

2)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ALUESearch, 에프엔가이드, 한국은행

【그림 II-4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수 추이



주: 2024년 1분기는 1월 현황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4) 연구개발 투자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4.0% 성장해왔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1.6% 역성장하면서 2023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55)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 6,123억원에서 2027년 4조 4,636억원으로 연평균 1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은 중국이 47,627건으로 전세계에서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5,545개(19.8%), 우리나라는 8,586개(10.9%)로 3위로 분석됐다.

제8장 대외거래

- ▶ 2024년 총수출은 5.8%, 총수입은 3.9% 증가할 전망
- ▶ 2024년 통관수출은 8.4%, 통관수입은 3.5% 증가할 전망
- ▶ 2024년 경상수지는 56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총수출	3.4	-0.9	6.9	3.1	7.2	4.5	5.8
총수입	3.5	4.4	1.9	3.1	4.2	3.7	3.9
상품수출(통관)	6.1	-12.4	-2.3	-7.5	9.8	7.1	8.4
상품수입(통관)	18.9	-7.8	-16.4	-12.1	-2.7	10.2	3.5
경상수지	258	11	343	355	286	274	560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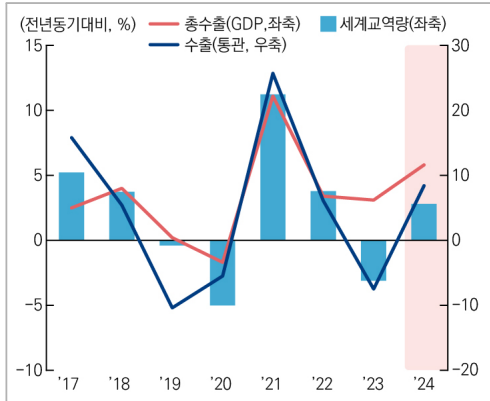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수입수요 확대 ◦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불안 ◦ 중국경제 성장세 악화

2024년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세계교역 증가와 글로벌 IT 경기회복으로 5.8%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제기구는 2024년 세계교역량이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⁵⁶⁾ 세계교역신장률이 회복됨에 따라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한 수출 회복세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전년(3.1%)에 비해 총수출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이다.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 7.2%, 하반기 4.5%로 예상된다.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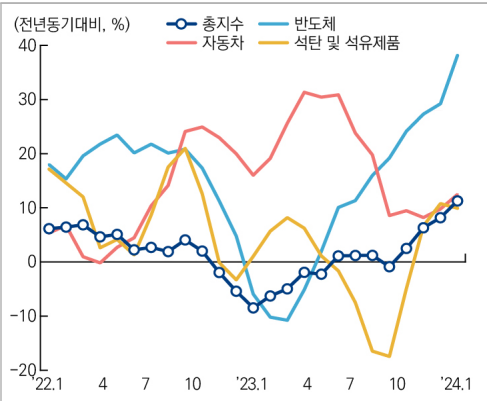
56) 세계교역량신장률은 IMF(2024.1)와 World Bank(2024.1) OECD(2023.11)의 최신 전망치의 단순 평균값이며 전년(0.6%)에 비해 2.2%p 높아졌다. 다만 해당 전망치는 지난 전망(2023.9)의 전제(3.3%)보다 0.5%p 하향조정됐다.

| 그림 II-44 | 2024년 수출전망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청(CPB),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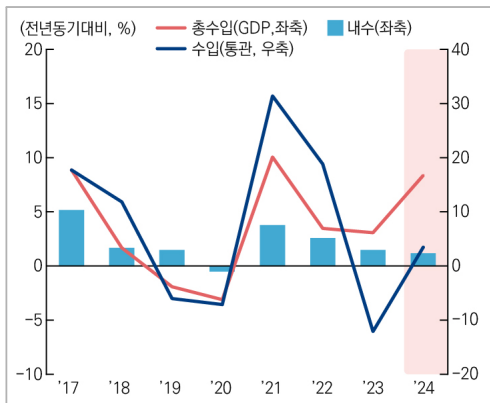
| 그림 II-45 | 주요 품목별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주: 수출물량지수를 3개월 이동평균해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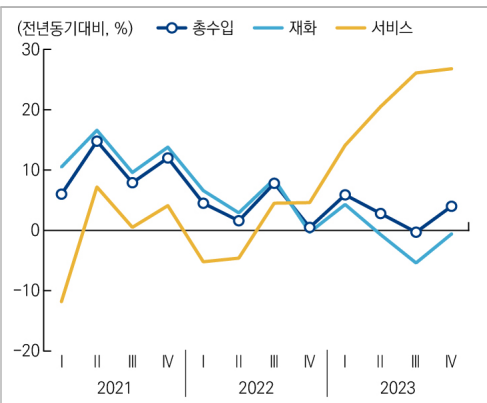
2024년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3.9%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수출증가로 원자재·중간재 수입수요가 같이 커지며 2023년(3.1%)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입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내수둔화를 반영하여 줄어들어 왔으며, 2024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가 회복되며 재화수입이 자본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크게 늘었던 해외여행 등 서비스 수입은 하반기로 가며 점차 증가세가 둔화할 예정이다. 총수입의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7%로 예상된다.

| 그림 II-46 | 2024년 수입전망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II-47 |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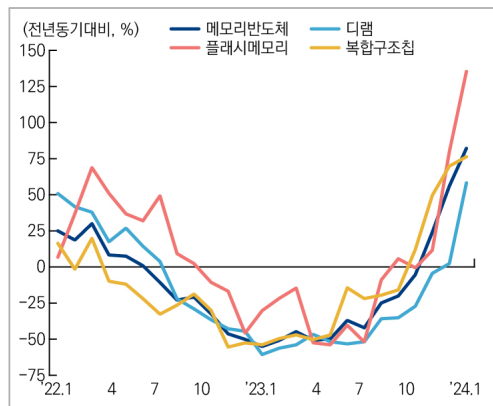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4년 통관기준 수출은 8.4% 증가할 전망이다. 통관수출은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출단가도 함께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수출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디램, 플래시메모리(NAND)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복합구조칩을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다.⁵⁷⁾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HBM, DDR5, 고용량 낸드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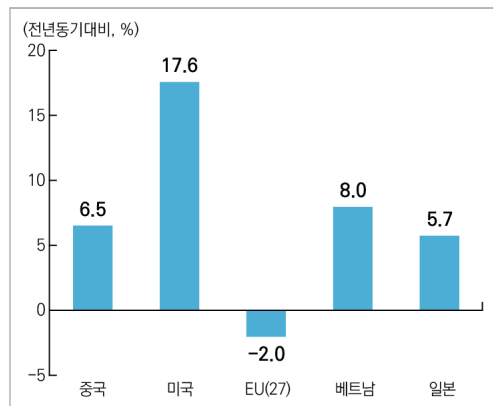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올해 대중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겠으며, 자동차, 기계류 수출 호조로 대미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다. 다만,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경제 성장세 약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는 수출의 하방 요인이다.⁵⁸⁾

| 그림 II-48 | 메모리반도체 유형별 수출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 그림 II-49 | 최근 국가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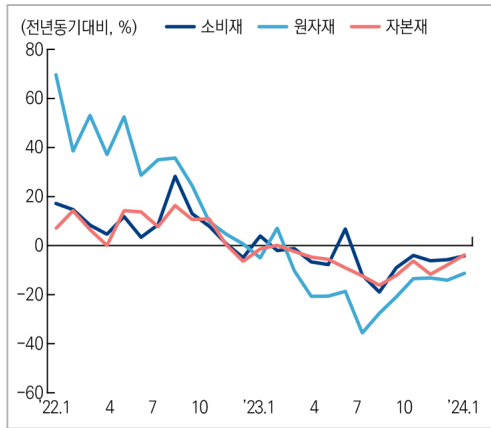
주: 2024년 1~2월 누적 수출액, 수출액 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2024년 통관기준 수입은 3.5%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재가격 안정,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크게 둔화했으나, 최근 둔화세가 다소 완화됐다. 2024년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수입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수입전망의 상방 위험이다.

57) 2023년에 HS코드(854232) 기준,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 플래시메모리, 복합구조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7%, 14.2%, 46.0%이며 기타는 7.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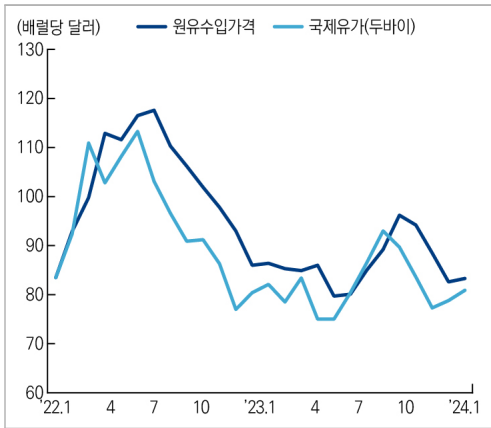
58) 자세한 내용은 "[BOX 5] 수입의존도로 평가해 본 우리나라 수입구조 취약성 분석" 참조(77페이지)

그림 II-50 | 유형별 수입증가율



자료: 관세청

그림 II-51 | 원유수입가격 추이



자료: 관세청, 연합뉴스

2024년 경상수지는 560억달러 흑자로 전년(360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국내 송금 등 배당 및 이자수익이 늘어나면서 316억달러(전년대비 55.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다소 축소되겠으나 꾸준히 증가해온 해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흑자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BOX 5] 수입의존도로 평가해 본 우리나라 수입구조 취약성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온 등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리스크(geo-political and geo-economic risks)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무역 규제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은 2024년에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반도체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규제 대상도 늘렸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이에 대항하고 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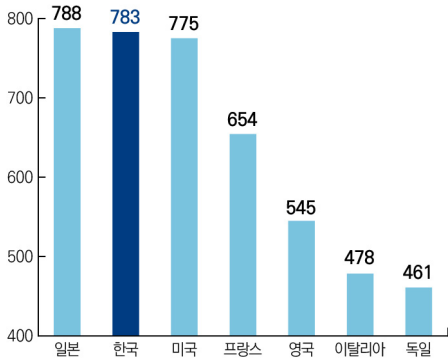
공급망 불확실성이 수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 미·중 양국 모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무역분쟁이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해보고자 우리나라의 수입구조를 수입의 국가집중도와 품목별 대중 수입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수입의 국가집중도를 분석해 본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의 국가집중도는 783으로 G7 주요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21.1%(2022년 기준)로 G7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수입비중은 11.2%로 영국(11.9%)보다는 낮았으나, 일본(10.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9) 중국은 반도체 소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2023년 12월 희토류의 정제·가공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등의 통제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희토류 분리, 금속 및 고성능 자석 생산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고 희토류 채굴, 선광, 제련 기술 수출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60) 미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의 경우 2,668로 G7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이는 미국과의 특수 관계(NAFTA)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 수입 국가집중도¹⁾ 국제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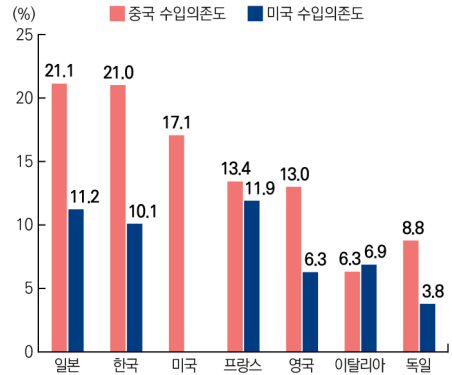


주: 1) 값이 높을수록 특정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2022년 기준).

2) 분석대상국 중 캐나다의 수입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는 미국과의 특수관계 (NAFTA)를 반영한 것으로 그래프에서는 제외하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UN Comtrade Database

1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국제비교 1



주: 중국(미국) 수입의존도는 전체수입에서 중국(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2022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UN Comtrade Database

원자재 등의 품목별 대중 수입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연간 수입액이 100만달러가 넘는 품목(HS코드 6자리 기준, 2,787개)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50%가 넘는 품목은 1,280개로 전체 수입품목의 약 46%를 차지하였다. 대중 수입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은 625개(22.4%), 90% 이상인 품목은 288개(10.3%)로 나타났다.

1 2023년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1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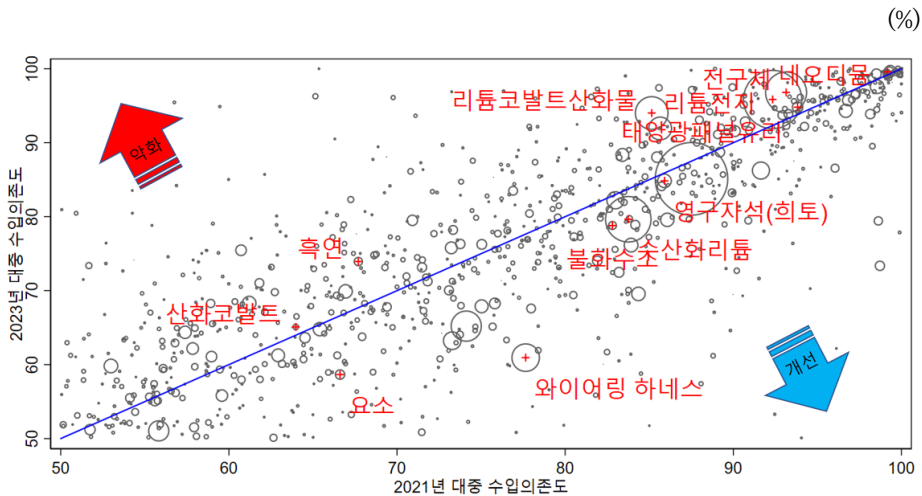
세계 시장 중국점유율	대중 수입의존도		
	50% 이상	75% 이상	90% 이상
50% 미만	894	385	159
50% 이상	386	240	129
합계	1,280	625	288

주: HS 코드 6자리 기준이며, 세계 시장의 중국점유율은 2022년 기준. 관세청과 UN Comtrade Database의 자료 연계를 위해 일부 품목의 HS 코드를 통합하여 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UN Comtrade Database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각 품목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 625개 중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의 비중은 38%(240개)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90% 이상) 288개 품목 가운데 129개(44.8%)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토류(86.5%), 영구자석(84.9%), 리튬이온축전지(95.8%), 수산화리튬(79.6%)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은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및 중간재이다.

ㅣ 품목별 대중 수입의존도 변화(2021-2023) ㅣ



주: 45도선을 중심으로 y축에 가까울수록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을, x축에 가까울수록 대중 수입의존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함. 원의 크기는 우리나라 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연합인포맥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수입의 국가집중도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으며, 특히 핵심 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G7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다. 그중에서도 주력 수출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문제다.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려는 그간의 노력으로 일부 품목에서 대중 수입의존도가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망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공급망 충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9장 소비자물가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6% 상승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f	하반기 ^f	연간 ^f
5.1	3.9	3.3	3.6	2.8	2.4	2.6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 국제유가 안정화
○ 높은 물가지속성	○ 강달러 완화
○ 공공요금 인상	○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2024년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6% 상승할 전망이다. 전망의 상방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높은 물가지속성,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국제유가 안정, 강달러 완화,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등은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3.9%)와 하반기(3.3%)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3.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상품물가(4.0%)와 서비스물가(3.3%) 모두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물가지속성을 나타냈으며⁶¹⁾, 2023년 중 시행된 공공요금 인상⁶²⁾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20.0%) 또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23년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개인 서비스물가 등의 높은 물가지속성⁶³⁾으로 인해 연간 3.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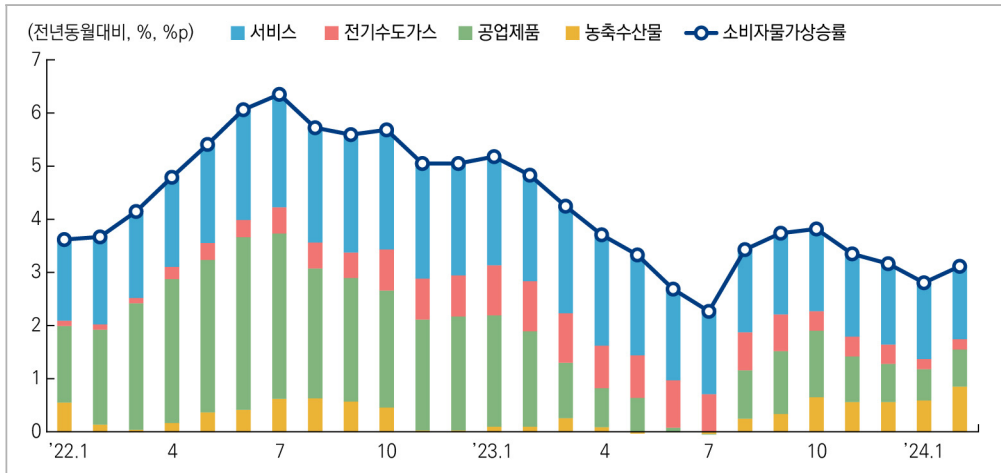
61) 상품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022년)6.7→(2023년)4.08

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022년)3.7→(2023년)3.3

62) 전기요금 인상(2023년 1월, 2023년 5월), 가스요금 인상(2023년 5월), 수도요금 인상(2023년 1월, 서울 기준)

63) 개인서비스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022년)5.4→(2023년)4.8

| 그림 II-52 |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분해



자료: 통계청

2024년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다. 2023년 중에도 농산물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주요 농산품의 국내 생산량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24년에도 농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OPEC+가 6월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한다고 발표⁶⁴⁾ 하면서 2024년 중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표 II-15 | 2024년 주요 농산품 국내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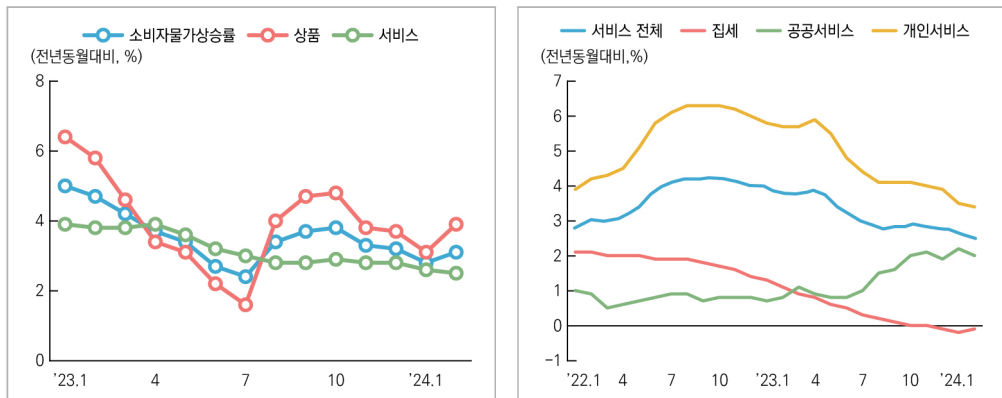
구분	2023	2024	전년 대비(%)
배추 (천 톤)	2,238	2,175	-2.8
쌀 (만 톤)	376	370	-1.6
건고추 (천 톤)	60	57	-5.0
돼지고기 (천 톤)	1,118	1,112	-0.5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24.1.)

64)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OPEC+는 올해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물가의 높은 지속성 또한 2024년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 소비자물가(3.1%)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하락폭 축소, 설 명절수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다시 3%대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서비스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3%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28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물가 또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정되어 있는 주요 공공요금 인상은 서비스물가의 지속성을 확대시키며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림 II-53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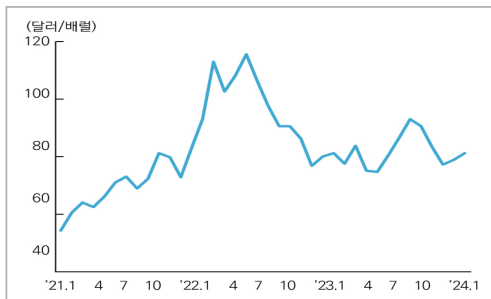
| 표 II-16 | 2024년 공공요금 인상 현황

구분	인상 지역
마을버스 요금	광명, 남양주, 수원, 의정부
시내버스 요금	대전, 대구
도시철도 요금	대구
지하철 요금	서울
수도 요금	고양, 부산, 세종, 속초, 안양, 여수, 인천, 의정부, 춘천, 태안, 포천

자료: 보도자료 종합(20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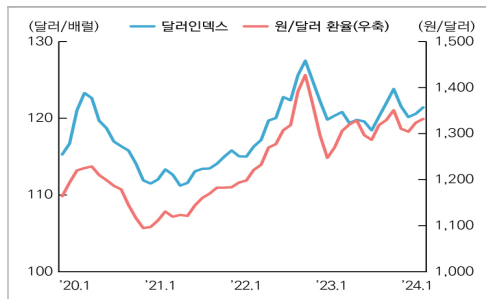
2024년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안정화와 강달러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최근 OPEC+의 감산 연장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23년 연간(82달러)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원유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경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 중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강달러가 완화되며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림 II-54 |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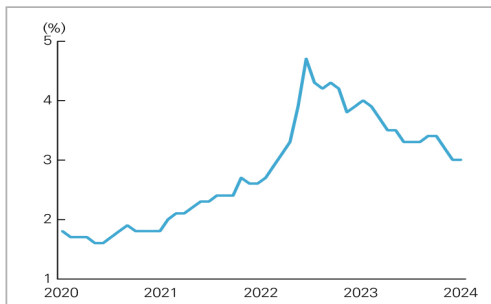
| 그림 II-55 |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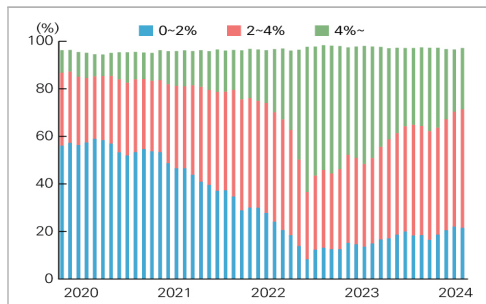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 또한 소비자물가의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023년 말부터 점차 하락하면서 2024년 2월에는 3%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 그림 II-56 | 기대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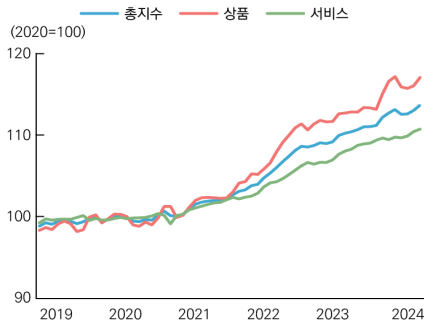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OX 6] 고물가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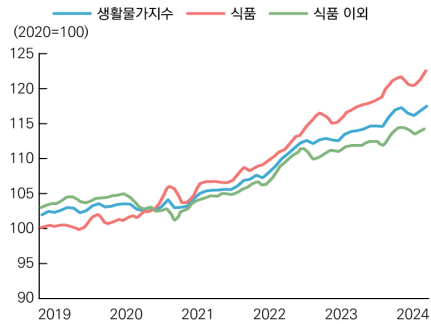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생활물가⁶⁵⁾에서도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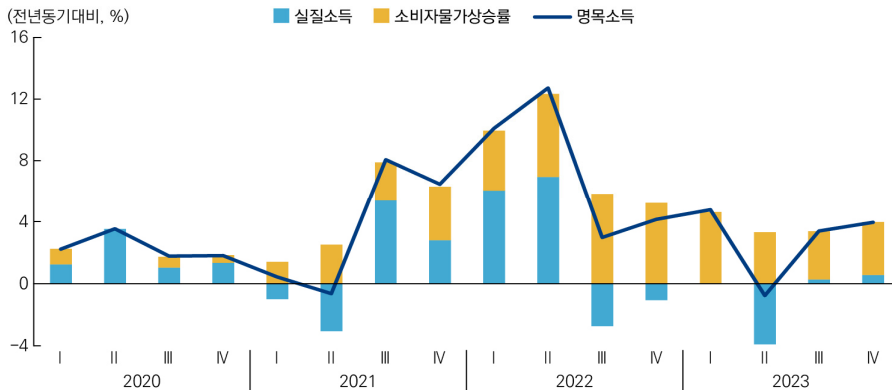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고물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는 간접적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 증가율을 낮춰 민간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실질소득은 2023년 2분기에 감소(-3.9%)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실질소득 감소는 향후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 실질소득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통계청

65)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144개 생필품으로 구성

지출 부문



국제비교

III

제1장 경제성장률

제2장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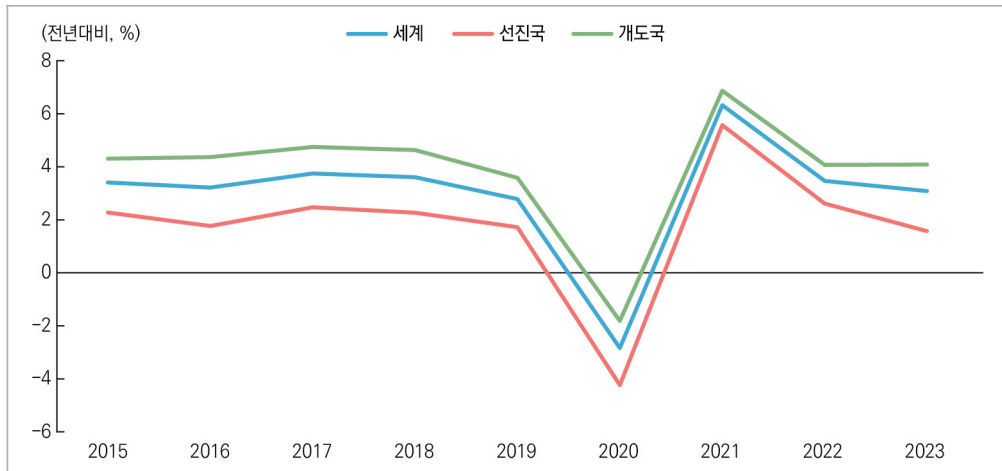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제4장 대외거래

제1장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1%⁶⁶⁾로 2022년 3.5%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긴축기조 강화, 중국과 유로지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긴축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 중 세계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4%였다.

그림 III-1 |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B,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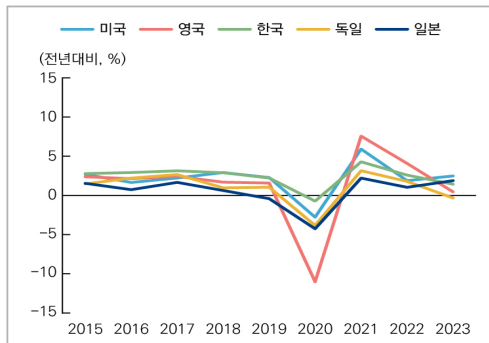
선진국의 성장률은 2023년 1.6%로 2022년 2.6%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유로지역과 영국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졌고, 반면 미국과 일본은 2022년 각각 1.9%, 1.0%에서 2023년 2.5%, 1.9%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66) IMF의 2024년 1월 추정치이다. IMF(‘24.1월), OECD(‘24.2월), WB(‘24.1월) 추정치 평균은 2.9%이다.

2023년 미국 경제는 미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과 가계의 초과저축 소진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호조세, 견실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2023년 중 완화적인 경제정책, 관광업 호조,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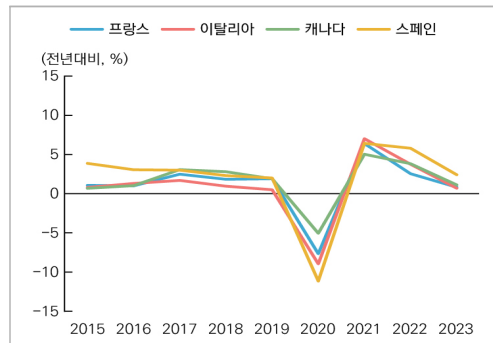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주요 선진국은 독일(2022년 1.8%→2023년 -0.3%), 프랑스(2022년 2.5%→2023년 0.8%), 이탈리아(2022년 3.7%→2023년 0.7%), 스페인(2022년 5.8%→2023년 2.4%)에서 모두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독일은 대외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금리에 민감한 주요 업종의 부진 등으로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관광수요의 회복 속도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22년 4.1%에서 2023년 0.5%로 큰 폭 하락하였다.

Ⅰ 그림 III-2 Ⅰ 주요 선진국 성장률(I)



주: IMF, WB, OECD

Ⅰ 그림 III-3 Ⅰ 주요 선진국 성장률(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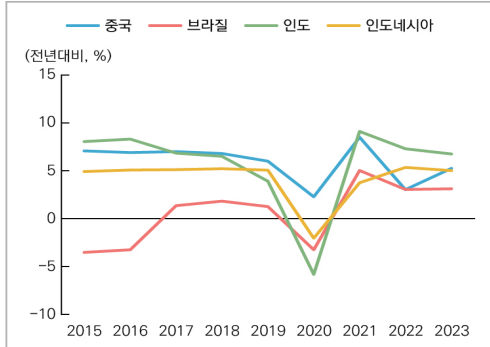


자료: IMF, WB, OECD

개도국의 성장률은 2023년 4.1%로 전년과 같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중국 경제는 2023년 초 경제재개방 효과 등으로 2022년 3.0%의 낮은 성장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연중 5.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성장률 6.7% (2015~2019년 중 연평균)를 1.5%p 밑도는 성장률이다. 인도는 예상보다 양호한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6.7% 성장하여 전년(7.2%)에 이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브라질 경제는 농산물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서비스부문 호조,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1% 성장하여 2022년(3.0%)에 이어 성장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멕시코는 지연되었던 팬데믹 회복 효과와 미국의 견실한 내수회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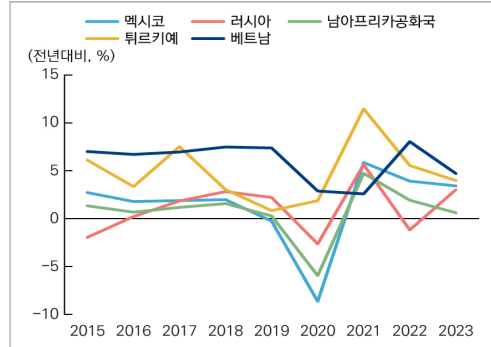
따른 파급효과 등으로 3.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년(3.9%)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튀르키예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23년 4.0% 성장하였다.

그림 Ⅲ-4 | 주요 개도국 성장률(I)



주: IMF, WB, OECD

그림 Ⅲ-5 | 주요 개도국 성장률(II)



자료: IMF, WB, OECD

표 Ⅲ-1 | 주요국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세계	3.4	3.2	3.8	3.6	2.8	-2.8	6.3	3.5	3.1
선진국	2.3	1.8	2.5	2.3	1.7	-4.2	5.6	2.6	1.6
미국	2.7	1.7	2.2	2.9	2.3	-2.8	5.9	1.9	2.5
독일	1.5	2.2	2.7	1.0	1.1	-3.8	3.2	1.8	-0.3
영국	2.4	2.2	2.4	1.7	1.6	-11.0	7.6	4.1	0.5
프랑스	1.0	1.0	2.5	1.8	1.9	-7.7	6.4	2.5	0.8
이탈리아	0.8	1.3	1.7	0.9	0.5	-9.0	7.0	3.7	0.7
스페인	3.8	3.0	3.0	2.3	2.0	-11.2	6.4	5.8	2.4
캐나다	0.0	1.0	3.0	2.8	1.9	-5.1	5.0	3.8	1.1
일본	1.6	0.8	1.7	0.6	-0.4	-4.2	2.2	1.0	1.9
한국	2.8	2.9	3.2	2.9	2.2	-0.7	4.3	2.6	1.4
개도국	4.3	4.4	4.8	4.6	3.6	-1.8	6.9	4.1	4.1
중국	7.0	6.9	6.9	6.8	6.0	2.2	8.5	3.0	5.2
인도	8.0	8.3	6.8	6.5	3.9	-5.8	9.1	7.2	6.7
브라질	-3.5	-3.3	1.3	1.8	1.2	-3.3	5.0	3.0	3.1
인도네시아	4.9	5.0	5.1	5.2	5.0	-2.1	3.7	5.3	5.0
멕시코	2.7	1.8	1.9	2.0	-0.3	-8.7	5.8	3.9	3.4
러시아	-2.0	0.2	1.8	2.8	2.2	-2.7	5.6	-1.2	3.0
남아공	1.3	0.7	1.2	1.6	0.3	-6.0	4.7	1.9	0.6
튀르키예	6.1	3.3	7.5	3.0	0.8	1.9	11.4	5.5	4.0
베트남	7.0	6.7	6.9	7.5	7.4	2.9	2.6	8.0	4.7

주: 2023년은 IMF WEO(24.1월) 추정치

자료: IMF, WEO database

제2장 소비

2023년 주요국의 민간소비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OECD 국가의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2%)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EU는 전년동기대비 -0.3%로 감소 전환하였고 일본(0.1%)도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재화 형태별 민간소비를 살펴보면 주요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침체되었던 서비스 소비⁶⁷⁾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고금리에 따라 소비 여력이 약화하여 재화 소비⁶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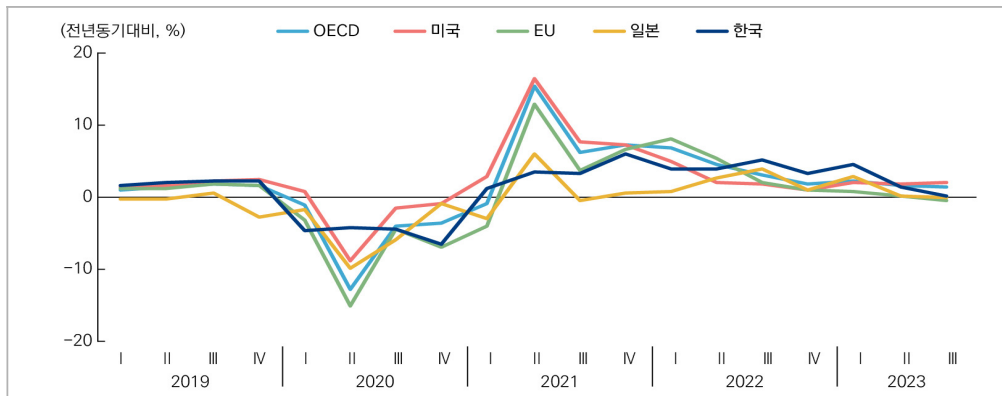
표 III-2 |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년		2023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OECD	3.2	1.9	2.4	1.7	1.5
미국	1.9	1.2	2.1	1.8	2.2
EU	2.1	1.0	0.9	0.3	-0.3
일본	4.0	1.0	3.0	0.4	0.1

자료: OECD

그림 III-6 |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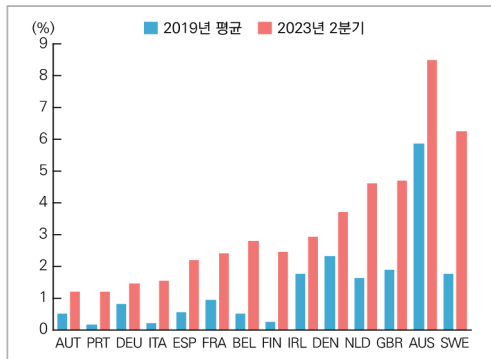
자료: OECD

67) 2023년 12월 중 미국의 서비스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고, 중국의 외식업 판매는 11월 (25.8%)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30.0% 증가를 기록하였다.

68) 2023년 12월 EU의 소매판매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하였고, 일본의 소매판매액도 전월대비 2.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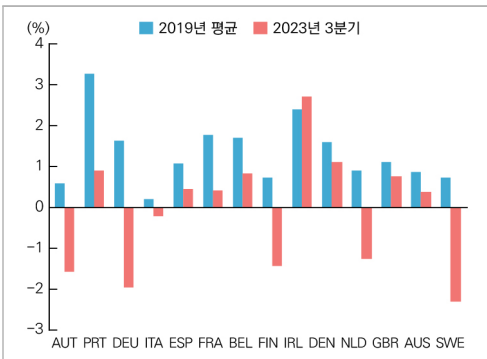
주요국의 민간소비도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되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 2019년 평균 1.4%에서 2023년 2분기 3.3%로 상승하였으며 주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상승하였다. 이처럼 이자 부담이 증가한 국가들의 민간소비 증감률은 2019년 평균 수준보다 둔화한 흐름을 보였다.

| 그림 III-7 |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



주: 2023년 2분기가 공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최근 자료 수치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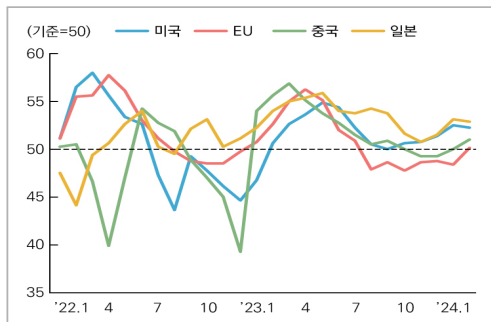
| 그림 III-8 | 주요국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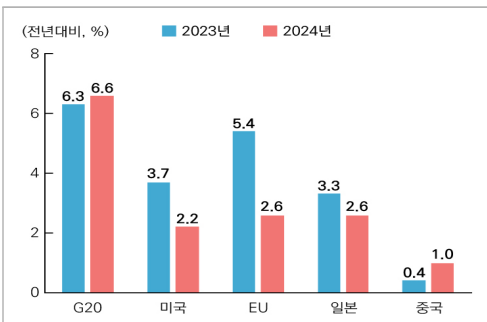
한편 서비스 소비의 개선은 주요국의 민간소비 부진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 주요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도 2023년 중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다. 2024년 주요국의 민간소비는 고금리 장기화로 상품 소비의 부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국 민간소비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II-9 | 주요국 서비스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III-10 | 주요국 물가 전망



자료: OECD

제3장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선진국보다 신흥개도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선진국 +0.5%p, 신흥개도국 +1.3%p), 이는 2022년에 신흥개도국으로의 FDI가 크게 늘어난 반면 선진국으로의 FDI는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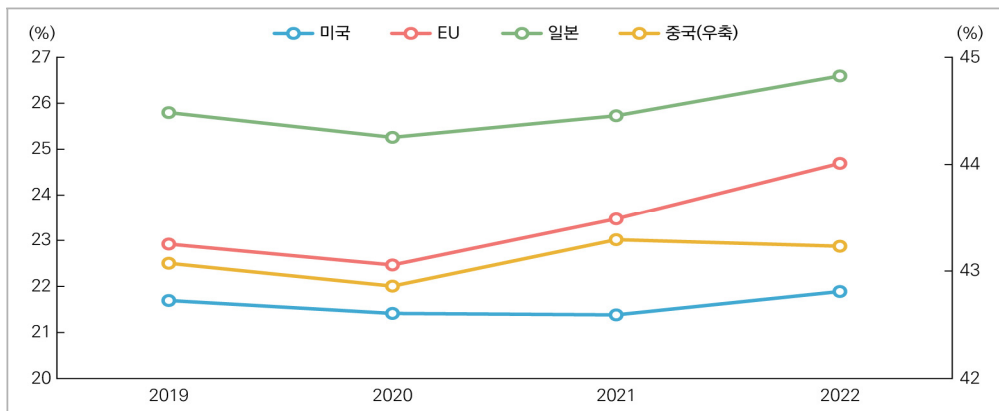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2022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상승한 데 반해 중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소폭 하락⁷⁰⁾하였다. 이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對중국 투자수요가 하락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 국가집단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2019	2020	2021	2022
세계	26.5	26.4	27.1	27.4
선진국	22.6	22.4	22.7	23.2
신흥개도국	22.9	22.5	23.3	24.6

자료: IMF WEO(2023.10.)

그림 III-11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추이



자료: CEIC

69) 글로벌 FDI 금액(2021년→2022년, 10억 달러): 선진국(597→378), 신흥개도국(881→916)

70) 중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 (2021년)43.3→(2022년)43.2

2023년 중에는 신흥개도국을 제외한 세계 및 선진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신흥개도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 또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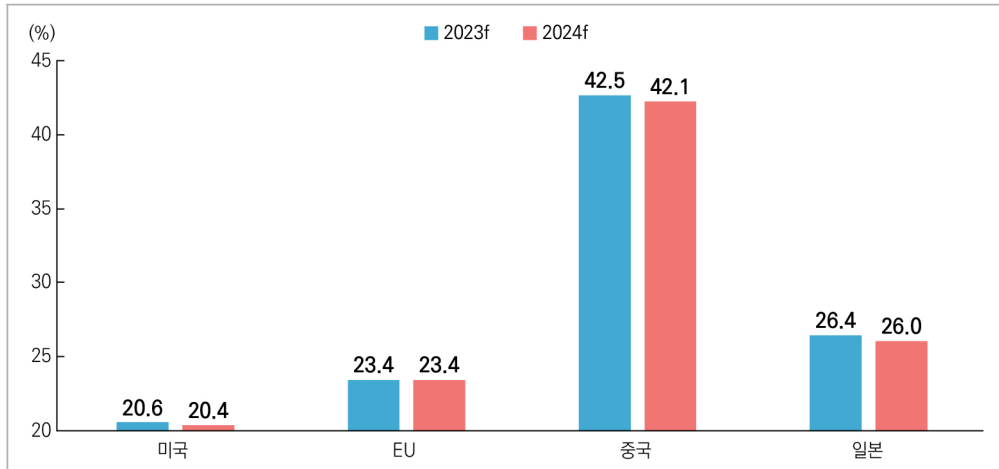
2024년 중 주요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의 과잉 투자 누적 등으로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42~4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⁷¹⁾.

표 III-4 | 국가집단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2023	2024
세계	26.4	26.2
선진국	22.4	22.2
신흥개도국	32.0	31.8

자료: IMF WEO(2023.10.)

그림 III-12 | 국가별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전망



자료: IMF WEO(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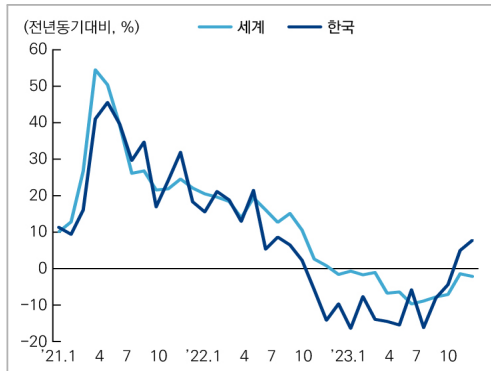
71) 다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24년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대외거래

2023년 세계의 통관수출입은 모두 둔화되었다. 세계 통관수출은 2023년(11월 기준)에 전년대비 4.9% 감소했는데, 상반기 -4.4%, 하반기 -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관수입은 전년대비 5.6% 감소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4.9%, 하반기에는 -6.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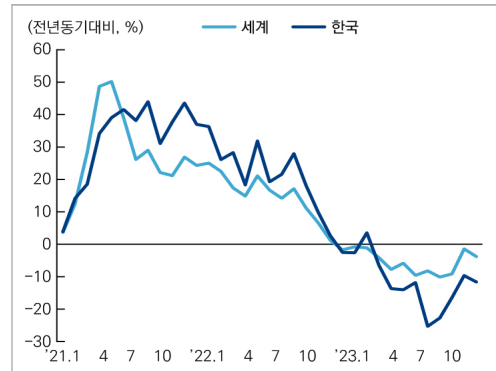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세계수출입 동향과 관련이 깊다. 최근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둔화속도가 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낮았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속도가 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수입은 세계수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에, 2023년 2분기 이후로는 세계 수입증가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했다.

| 그림 III-13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출



자료: IMF DOTS

| 그림 III-14 | 세계 및 우리나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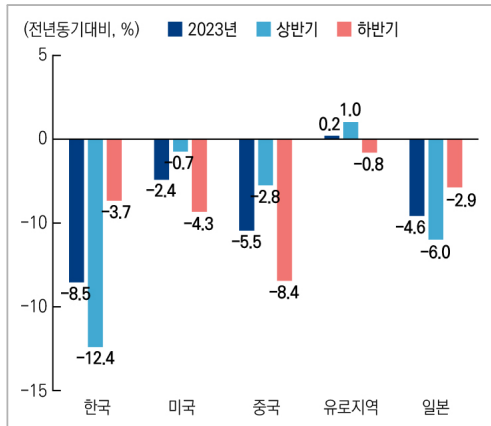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주요국별로 수출증가율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유로지역을 제외한 주요국의 수출은 감소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023년에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0.7%, 하반기 -4.3%로 하반기에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더 빠르게 감소했다. 중국의 2023년 통관수출은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8%, 하반기 -8.4%를 기록했다. 유로지역의 통관수출은 2023년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반기별로는 상반기 1.0% 하반기 -0.8%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23년에는 전년대비 -4.6%를 기록하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6.0%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2.9%를 기록하면서 수출 둔화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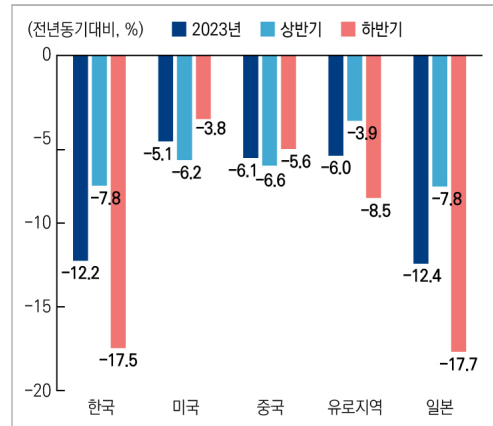
수출과 마찬가지로 2023년 수입은 감소세이나 국가별로 반기별 증가세는 다소 상이하다. 2023년 미국의 수입은 전년대비 5.1%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상반기 -6.2%에서, 하반기 -3.8%로 줄었다. 중국의 경우 전년대비 6.1% 감소했으며, 다만 상하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상반기 -6.6%, 하반기 -5.6%). 유로지역에선 전년대비 -6.0%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3.9%, 하반기 -8.5%로 하반기 감소 속도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수입둔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랐다. 일본의 2023년 수입은 전년대비 12.4% 감소했으며, 상반기 -7.8%, 하반기 -17.7%로 하반기의 둔화속도가 빨랐다.

| 그림 III-15 | 주요국 통관수출증가율 추이



주: 2023년 11월 기준
자료: IMF DOTS

| 그림 III-16 | 주요국 통관수입증가율 추이



주: 2023년 11월 기준
자료: IMF DOTS

다음으로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미국의 경상수지는 6,348억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2022년(-7,673억달러)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 2023년 분기별로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와 3분기에 적자규모가 컸다. 중국의 2023년 경상수지는 2,090억달러 흑자로 전년 2,987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었다. 2023년 분기별로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와 3분기에 흑자규모가

작았다. 유로지역에서는 2023년 경상수지가 1,798억달러 흑자로 전년 851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분기별로는 3분기로 갈수록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일본의 경상수지도 2023년에 흑자폭이 커졌다. 일본의 2023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99억달러로 2022년 733억 달러보다 커졌으며, 2023년 분기별로는 1분기에서 3분기로 갈수록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표 III-5 | 주요국 경상수지 추이

(억달러)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1~3분기	1~3분기	1~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한국	644	257	166	-46	70	141
미국	-6,064	-7,673	-6,348	-1,897	-2,238	-2,213
중국	2,240	2,987	2,090	815	647	628
유로지역	3,447	-851	1,798	326	417	1,055
일본	1,650	733	1,099	182	378	538

자료: IMF BOP/IIP

IMF에 따르면⁷²⁾, 2024년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⁷³⁾에서 총수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4년 미국의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0.2%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 1.6%에 비해 -1.8%p 둔화된 수치이다. 중국의 2024년 총수출은 1.1%로 전년(-1.8%) 대비 2.9%p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2024년 총수출은 2.4%로 전년(1.0%) 대비 1.4%p 증가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주요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2024년 총수출 증가율은 1.8%로 전년(-2.8%)에 비해 4.6%p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2024년 총수출은 5.1%로 지난해(4.4%)에 이어 양호한 총수출 증가세를 보일 예정이다. 2024년 독일의 총수출은 3.5%로 전년(0.9%) 대비 2.6%p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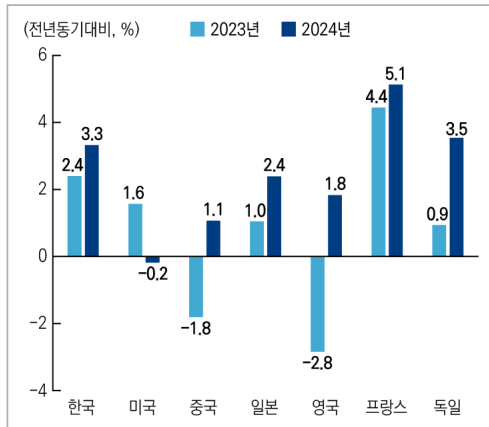
2024년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주요국 모두에서 2023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전년 -2.8%에서 2024년 -0.1%로 둔화세가 완화될

7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10),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

73)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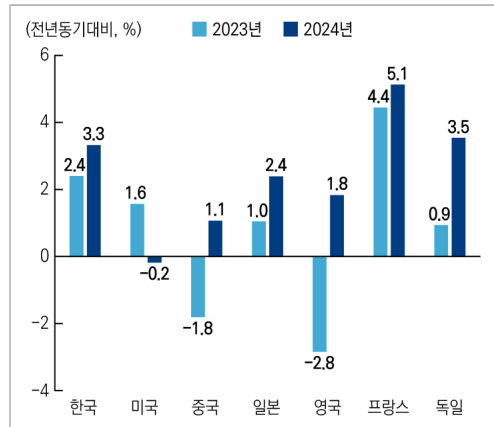
전망이다. 중국의 2024년 총수입은 2.7%로 전년 -0.6% 대비 3.3%p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의 2024년 총수입은 전년 -2.3%에서 4.7%p 확대된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주요국 총수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영국의 2024년 총수입은 1.2%로 전년(-1.6%)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의 총수입은 2024년 4.3%로 전년(2.9%)에 이어 상승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의 총수입은 2024년 3.5%로 전년(0.2%) 대비 3.3%p 증가할 전망이다.

| 그림 Ⅲ-17 | 2024년 주요국 총수출전망



주: 2023년, 2024년 모두 전망치임
자료: IMF WEO(2023.10)

| 그림 Ⅲ-18 | 2024년 주요국 총수입전망



주: 2023년, 2024년 모두 전망치임
자료: IMF WEO(2023.10)

2024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4 Economic Outlook I)

발간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SN 3022-7739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0496-001627-10

ISSN 3022-7739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